



#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4호 (2013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4호 (2013년 7·8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ontents

## 7 July 2013

---

❶ 주차_7.01-7.07	1. 대내 동향 ..... 6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❷ 주차_7.08-7.14	1. 대내 동향 ..... 2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29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3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❸ 주차_7.15-7.21	1. 대내 동향 ..... 40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47
	3. 대남 동향 ..... 54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❹ 주차_7.22-7.28	1. 대내 동향 ..... 60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68
	3. 대남 동향 ..... 7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❺ 주차_7.29-7.31	1. 대내 동향 ..... 78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8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84

인쇄: 2013년 9월 발행: 2013년 9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훈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 8 August 2013

① 주차_8.01-8.04	1. 대내 동향 ..... 8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9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95
② 주차_8.05-8.11	1. 대내 동향 ..... 9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03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08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③ 주차_8.12-8.18	1. 대내 동향 ..... 11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18 3. 대남 동향 ..... 12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④ 주차_8.19-8.25	1. 대내 동향 ..... 12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32 3. 대남 동향 ..... 138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⑤ 주차_8.26-8.31	1. 대내 동향 ..... 144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4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55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7월 일지 / 162	
■ 8월 일지 / 164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01-7.07

7월

1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군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7/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51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포병 싸움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시에 훈련을 강화해 모든 포병을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참관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박태성·황병서 노동당 부부장, 홍영칠,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상장(우리의 중장), 주도현 중장(우리의 소장), 림광일 소장(우리의 준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일성 사망일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 박차(7/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2면 상단에 주민들 속에서 환하게 웃는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배치하고 2면 전체에 걸쳐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아버지’란 제목으로 여러 꼭지의 김 주석 관련 일화를 실었으며 ‘아버이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넘쳐나는 조국강산’이란 제목으로 4면 대부분을 김 주석을 추억하는 각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할애함.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전승기념관·인민군열사묘 시찰(7/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일:7월 27일)에 완공 목표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하 전승기념관)과 인민군열사묘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이번 시찰에는 최휘 노동당 제1부부장, 박태성·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홍영칠,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군 장성인 박정천·주도현 등이 수행함.

● ‘7·4공동성명은 김일성 업적’ 선전(7/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자주통일의 근본 초석을 마련해주시여’라는 글에서 “7·4 공동성명의 채택은 실로 나라의 통일위업 실현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고귀한 민족애, 불멸의 노고와 헌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찬양함
- 신문은 김일성 주석이 1972년 5월 방북한 이후라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北김정은, 2월부터 매달 1회이상 ‘전승기념관’ 방문(7/7,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은 올해 2월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승기념관) 개축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7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월과 4월, 6월, 7월 전승기념관 건설 현장을 1차례씩, 5월에는 2차례 방문했고, 3월 24일에는 전승기념관에 전시할 사적물과 사적자료, 모형들을 살펴봄.

■ 김정은동향

- 7/1,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851군부대 포사격훈련 현지지도(7.1,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박태성, 황병서, 홍영칠, 윤동현, 박정천, 주도현, 림광일 동행
- 7/2, 김정은 黨 제1비서, 과학자살림집건설장(평양시 교외·1,000세대)·완공단계에 이른 인민군열사 묘(평양시 연못동 입구)·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시찰(7.2,중통·중방·평방)
  - 최취, 박태성, 황병서, 홍영칠, 마원춘, 윤동현, 박정천, 주도현 동행
- 7/3, 김정은 黨 제1비서, 강동정밀기계공장 현지지도(7.3,중통·중방)
  - 최룡해, 황병서, 홍영칠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인민군열사묘·과학자살림집건설장 현지요해(7.3,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미평협동농장(강원도 통천군) 현지 요해 및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방문(7.1,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내각 총리),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건설현장 요해(군인 건설자들 고무) 및 평양 학습장공장(현대화 정형 요해) 방문(7.4,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강원도 세포등판 개간전투장 현지 요해(7.5, 중통·중방)
  - 강원도 세포군 리목리와 현리를 돌아보고 군인들이 조성한 인공풀판과 먹이풀 비배관리 실태 요해
- 박봉주(내각총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순천화학연합기업소·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생산정형 현지요해(7.6, 중통·중방)

## 나. 사회문화

- **北, 젊은층 사상교육 강조…“전승의 역사 기억하자”(7/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반미공동투쟁월간(6월25일~7월·27일)’을 맞아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함.
  - 신문은 ‘반제반미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 세대’, 즉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에 대한 반미·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계급사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설이나 영화로만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한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반계급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전승의 역사는 지나간 과거로만 남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北도 장마 시작…일부 지역 200mm 폭우(7/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북한)에서 장마가 시작됐다”며 “2일 중부 지방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방과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폭우가 내렸다”고 전함.
- **北 “병진노선 관철 위해 과학기술 발전 절실”(7/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당의 영도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병진노선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새 시대는 일군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 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힘.

- 신문은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근시안적인 태도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먼 앞날의 일이나 남의 일처럼 여기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은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눈앞의 일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함.

● “큰물 피해 막자”…北, 장마철 수해 대책 독려(7/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농촌경리부문에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자’는 기획성 기사 5건에 5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함.
- 신문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세운 피해방지대책’이라는 기사를 통해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지난겨울 강 폭을 2배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금야강에 있는 발전소의 독을 이용해 여러 하천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고 선전했으며 평안남도 문덕군과 평안북도 운전군의 협동농장에서는 하천의 독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낮은 곳에 있는 논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곳에 있는 논두렁을 높이기까지 했다고 전함.

● 북한 올해 아리랑공연 초점은 ‘정전협정 60주년’(7/5,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아리랑 국가준비위원회(준비위) 김금룡 책임연출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아리랑 공연이 6·25 전쟁 당시 ‘군사적 기적’을 창조한 김일성 주석의 ‘전승 업적’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함.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준비위 관계자와의 문답을 통해 올해 공연은 김일성 주석이 1953년 전승열병식 광장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육성녹음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전함.

● ‘과학자 우대하라’…北 김정은, 과학자 처우 개선(7/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5일 ‘당의 영도 따라 과학기술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과학자·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과학연구사업은 절대적인 시간과 집중적이며 중단없는 사색과 탐구를 요구한다며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잡다한 과제를 내리 먹이거나 다른 사업에 망탕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쿠바 방문 北 김격식 총참모장, 양국 우호관계 강조(7/1, 미국의소리(VOA))**
  - 쿠바를 방문 중인 북한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난달 28일 쿠바 독립 전쟁을 이끈 안토니오 마세오 기념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쿠바와의 관계를 ‘참호를 함께 쓰는 사이’로 표현하며 양국 간 밀접한 우호관계를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일 전함.
  
- **올 1~5월 북중 교역액, 작년 비해 2.3% 감소(7/2, 미국의소리(VOA))**
  - 올해 1~5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은 약 24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일 보도함.
  -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1억 1천 773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은 13억 3천 515만 달러로 작년보다 8.5% 감소하면서 전체 북중 교역액이 작년보다 줄.
  
- **미국 농무부 “北, 아시아서 식량상황 가장 심각”(7/2, 연합뉴스)**
  -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식량안보평가 2013~2023’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식량 상황이 불안정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북한을 꼽았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보고서는 그동안 북한 농업에서 부족한 자원과 부적절한 정책이 식량난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으며, 1990년대 초 매년 750만 t을 넘었던 연간 곡물 생산량이 2012년에는 430만t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힘.
  
- **北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중국 방문(7/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표단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중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北 선수단,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7/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학생 선수단이 러시아에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의 전극만 내각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학생 체육협회 위원장이 대표단 단장이라고 전하면서도 대표단의 규모와 참가 종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북한-쿠바, 아바나서 군사회담…관계강화 방안 논의(7/2, 조선중앙통신)**
  - 김격식 인민군 총참모장, 전영진 쿠바 주재 북한대사 등이 포함된 북한 군사대표단과 레오폴도 신트라 파리아스 쿠바 혁명무력부 장관 등이 포함된 쿠바 군사대표단이 지난달 30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북한 노동자 1천749명 몽골서 취업(7/3,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몽골 노동부를 인용해 정식 취업허가를 받고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지난 4월 기준으로 1천749명에 이른다고 보도함.
  
- **北-몽골, IT 교류협력 협정 체결(7/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가소프트웨어총국의 강영준 총국장과 몽골 정보기술·우편·통신국의 차간-어부건 자담바 국장,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북한 주재 몽골 특명전권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과 몽골이 정보기술(IT) 분야의 교류와 협조와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北, 케네스 배씨 특별교화소 생활 공개…종일 농사일(7/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일 배 씨가 수감된 특별교화소를 직접 방문한 후 썼다는 기사에서 “배준호는 아침 6시에 기상해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동하고 있다”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했다”고 전함.
  - 배 씨는 인터뷰에서 “(가족들은) 조속히 좋은 조치가 공화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면 요청을 공화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함.

● **北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증가세…작년 7천 900만 달러(7/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4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근 발표한 ‘2013 세계투자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7천900만 달러로 2011년 FDI 순유입액 5천600만 달러보다 41% 증가했다고 보도함.
- 북한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2009년 200만 달러에서 2010년 3천80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으나, UNCTAD 보고서는 북한보다 FDI 유입액이 적은 나라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와 오세아니아와 카리브해 연안의 일부 작은 나라들밖에 없다고 밝힘.

● **美, 케네스배 건강 우려…즉각 석방 거듭 촉구(7/4, 연합뉴스)**

-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배씨(케네스 배)의 인터뷰 기사 사진을 보았으며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했다”고 말하고 “이는 당연히 우리 모두의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배씨를 사면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방중 김성남 북한 부부장, 왕자루이 면담(7/4,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통신은 김 부부장이 이들과 회동에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교류 강화 문제를 논의했거나 김 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의사를 타진했을 수도 있다고 관측함.

● **프랑스, NGO 통해 50만 달러 상당 대북 지원(7/5, 미국의소리(VOA))**

- 프랑스 정부가 올해 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함.

- 프랑스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프랑스 정부가 지원한 20만 유로(26만5천 달러)를 이용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다른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도 프랑스 정부가 올 1월 지원한 19만 유로(25만 달러)를 사용해 북한에서 식수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음.

기타 (대외 일반)

- 美 육군 23화학대대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北)를 대상으로 생화학전을 벌이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재차 비난(7.1,평방)
- ‘美 해외주둔 해병대기지가 日 오키나와에 대부분 주둔(총20개 중 13개 주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北)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7.3,중통·노동신문)
- 北 ↔ 러시아 외무성 제1부상 사이의 회담, 7.4 모스크바에서 진행(7.5,중통·중방)
  - 이날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과 러시아 외무성 부상(‘이고리 모르쿨로브’)이 협상

나. 6자회담(북핵)

● 일본 총리보좌관 “북핵·미사일 어찌되든 상관없어”(7/1, 연합뉴스)

-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총리보좌관(국정 중요과제 담당)은 지난 달 30일 오후 후쿠오카(福岡) 시내에서 열린 납치 문제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핵도, 미사일도, 납치도 함께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핵이나 미사일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에토 보좌관은 집회 후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인적으로는 (핵·미사일은 어찌 되든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핵·미사일·납치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함.

● 북한 김계관,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7/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이 2일 평양을 출발했다”며 “비행장에서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조 러시아 대사,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전송했다”고 보도함.

- 김 제1부상은 이달 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 등을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 **北 박의춘 외무상 “美,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야”(7/2, 연합뉴스)**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의 격화와 악순환을 끝장내고 평화와 안정 수행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전제 조건 없이 우리의 선의와 용단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북미 고위급회담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박 외무상은 “조선반도 정세가 이리 악화되고 있는 근처에는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정책이 깔려있다”면서 “장본인인 미국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이런 적대 정책이 청산되지 않고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 문제를 비롯한 어떤 문제 해결도 힘들 것”이라면서 “유엔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 **ARF 의장성명 채택…北주장은 반영 안돼(7/2, 연합뉴스)**

-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ARF 회의에서 나온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부분의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성명은 이어 “이를 위해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함을 재차 표명했다”면서 “대부분의 장관들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장관들은 아울러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 믿음과 신뢰의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평화적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북한 김계관, 러시아 측과 5시간 회담(7/5,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고위 인사들과 무려 5시간에 걸쳐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 대해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이 김 제1부상과 면담했으며,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과 김 제1부상 간 협의도 있었다”며 “회담에서 양측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의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덧붙임.
  - 또한 “러시아 측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2005년 9.19 공동 성명에서 합의된 원칙들에 기초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반도 상황 안정화가 실용적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현저히 활성화하고 대규모 다자 경제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고 밝힘.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朴대통령 訪中 발언 비난…“용납 안될 중대도발”(7/1,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했던 대북 발언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방중기간에 “새로운 남북관계’니, ‘새로운 한반도’니 하면서 우리에게 대해 또다시 ‘변화’ 타령을 했는데 변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 정권”이라며 주장하면서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반공화국 국제공조로 우리 체제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라며 “우리는 박근혜에 대해 지금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거듭 요구(7/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의 암적 존재’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이나 평화냐 하는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된 원인은 유엔군사령부의 외피를 쓴 남조선 강점 미군에 있다”며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거듭 요구함.
  - 신문은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 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하는 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역설하면서 “미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그를 이용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과 전쟁 도발에만 매달리며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이며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함.
  
- **北, 대남 비난 지속…“南,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7/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말과 행동이 판이한 위선자들의 몰골’이라는 논평에서 “류길재가 저들은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 듯이 사태를 왜곡한 것은 격분을 자아내게 한다”라며 남한 당국이 북

한에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그것은 ‘핵 포기’, ‘변화’와 같은 ‘대결신호’라고 주장함.

-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민족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북침전쟁을 추구하는 미국의 신호를 되받아넘기면서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것이 ‘대화’를 바란다는 남조선 당국의 진짜 몰골”이라고 비난함.

● **北 박의춘, ARF서 ‘6·15와 10·4선언 이행’ 언급(7/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박 외무상이 전날 브루나이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평화변영을 위한 변함없는 입장에서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적이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판문점 연락채널 재가동…“개성공단 방북 허용”(7/3, 연합뉴스)**

- 북한은 3일 오후 5시경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와 개성공단입주 기업협회 측에 보내는 문건에서 “장마철 공단 설비·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면서 “방문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북한은 또 판문점 연락채널을 정상화하자는 우리측의 문제 제기에 호응, 이날 연락관 접촉 뒤 오후 5시 30분경 이뤄진 양측간 마감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짐.

● **北 “7·4공동성명 조국통일 3대원칙 지켜야”(7/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 통일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선포는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7·4공동성명의 계승발전이라고 규정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그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새 세기 조국 통일위업 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밝힘.

- 신문은 현재 남한의 집권세력이 ‘반공화국(반북)대결소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교훈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무시하며 그와 배치되게 행동하면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종당에는 핵전쟁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회의록 공개 또 비난…“정상외교 진정성 믿겠나”(7/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 “초보적 신의도 없는 정치불한당들의 자살적 행위”라고 거듭 비난함.
- 통신은 ‘별거벗고 세상천하에 나선 정치무뢰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행위는 “청와대의 개입과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한의 집권세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기 위해 극비문서 공개를 주패장(카드)으로 쳐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실무회담 앞두고 ‘우리 민족끼리’ 강조(7/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5일 “북과 남이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민족의 운명을 해치는 외세의존 행위’란 제목의 정세 해설기사에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면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南北 6·15실천위, ‘8·15 공동행사’ 개성 개최 추진(7/5,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 및 해외 측 위원회가 광복절 68주년 기념행사를 개성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와 북측위, 해외측위는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6·15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5일 발표함.

● **北신문, 朴대통령 ‘진정성 대화’ 발언 비난(7/6, 노동신문)**

-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린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언급한데 대해 “언어도 단”이라고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함.
- 신문은 ‘대결기도를 감추기 위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상대방의 정책노선을 악랄하게 헐뜯는 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힘.

● **北노동신문, 윤병세 외교장관 비난…“외세 의존 추태”(7/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핵 포기’를 강조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난함.
- 신문은 ‘외세의존적 본성을 드러낸 추태’란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있는 아세안지역연단 상(장관)회의 기간 윤병세는 북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달라고 여러 나라에 목 쉬도록 간청했다”라며 “동족대결에 환장해 수치도 모르는 자들의 역겨운 추태”라고 전함.

**나. 경제사화문화**

●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6일 판문점서 개최(7/5, 연합뉴스)**

- 남북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북측이 오늘 오후 8시25분께 통보해 왔다”고 밝혔으며 합의에 앞서 남북은 실무회담 개최 문제에는 쉽게 의견을 모았으나 장소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음.
- 북한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등 3명이 대표로 회담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우리 측은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함.

- **북한 여자축구 동아시아컵 참가 확정…8년 만에 방한(7/5, 연합뉴스)**
  -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20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출전이 최종 확정됐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축구협회가 지난달 27일 “여자 대표팀을 대회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해온 데 이어 우리 정부가 5일 북한 대표팀의 방한을 승인했으며 대표팀은 베이징에서 떠나는 인천행 항공편을 이용해 18일 입국함.
  
- **동해상서 조난 北주민 3명 구조…판문점 통해 송환(종합2보)(7/5, 연합뉴스)**
  -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주민 3명이 우리 측 선박에 의해 구조된 뒤 5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은 지난 3일 오전 동해상에서 소형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다가 선박이 전복되면서 조난을 당했으며 때마침 인근 수역을 지나던 우리 측 민간 화물선이 이들을 발견, 무사히 구조한 뒤 신병을 해양경찰에 인계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함.
  
- **北 청소년 축구대표팀, 조총련 대표팀과 연습경기(7/6, 조선신보)**
  - 북한의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고위간부들의 관심 속에 지난달 하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청소년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가졌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전함.
  - 신문은 “재일조선 청년 학생 축구대표단이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조국(북한)을 방문해 16세 이하, 19세 이하 조선(북한) 대표 선수들의 추가실력 점검을 겸한 경기에 출전했다”고 밝힘.
  
-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10일 방북해 설비점검(종합)(7/7, 연합뉴스)**
  - 남북한은 7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준비가 되는데 따라 기업들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한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는데도 합의했으며, 남측 기업이 완제품·원부자재와 절차를 밟은 설비의 반출하는 것을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통신을 보장키로 함.

-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기로 함.
- 남북 양측은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함.

● **北, 남북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 신속 보도(7/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오전 4시께 판문점에서 채택된 남북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을 3시간여 만에 신속히 보도함.
- 통신은 오전 7시 29분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6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됐으며 “회담에서는 남측 기업의 장마철 피해를 줄이고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힘.
- 또한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업지구 사업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4개 항의 합의서 전문을 공개함.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문답(7.1)]차 대통령의 訪中 시 발언(병진노선 애당초 불가능한 일, 스스로 고립만 자초 등) 관련 ‘우리의 존엄과 체제, 정책노선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7.1,중통·중방)
- [7.4공동성명]발표 41주년 관련 ‘조국통일3대원칙을 근본초석으로 6.15·10.4선언의 기치높이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 주장(7.4,중통·노동신문)
- 통일부장관 발언(6.28, 북은 남북자 문제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됨 등) 및 우리 정부의 ‘6·25전쟁 남북자’ 인정(김규식 등 274명)에 대해 ‘反北 대결소동’이라고 지속 비난(7.4,평방)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실무회담’, 7.6~7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 및 합의서 채택(7.7,중통)
  -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 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정비 진행,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 반출, △남측 인원·차량들의 통행·통신과 신변안전 보장,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 개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08-7.14

7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김일성 19주기에 금수산궁전 참배(7/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19주기를 맞아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민족 최대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전승기념관 개관식 성대히 하려 한다”(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승기념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전승기념관 개관식을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라며 “전승기념관은 나라의 보물고, 반미 대결장, 반미교양의 중요 교양거점”이라고 강조함.
  
- **北 내각 확대회의 개최…경제성과 독려(7/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시한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의 과업을 결사관철하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또한 내각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인민경제 수행 상황을 평가하고 3·4분기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으며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세포등관 개간,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 과학자 살림집(주택) 건설 등을 경제 성과로 언급함.
  - 회의에는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 등 내각 간부와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도지구계획위원회 위원장,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 국장, 주요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들이 참석함.

### ■ 김정은동향

- 7/8, 김정은 黨 제1비서, 7.8 0시 ‘김일성 사망(7.8)’ 19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및 ‘김일성·김정일에게 경의 표시’(7.8,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장성택·김격식·장정남·김원홍·현철해·최부일·주규창·김경옥 등 참가
- 7/11, 김정은 黨 제1비서,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7.11,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김기남·최태복·김영일·김양건·김평해·곽범기·문경덕·한광상·리재일·박태성·조경철이 동행
- 7/14,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한 설철수(국가건설감독성 처장) 등에게 ‘감사’ 전달(7.14,중방)

###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7.8,중통)
- 김영남을 비롯한 당·국가 책임일꾼들 등, 7.8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8,중통·중방)
- 쏘민은 ‘상반기 강성국가건설 투쟁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김정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라’고 독려(7.10,중방·노동신문·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사적건물들의 영구보존실태와 관리정형 현지요해(7.13,중통)

## 나. 경제

### ● 北, 제품 질 제고 위한 인센티브 강조(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질 제고에서 경제적 공간의 효과적 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하고 경제부문 간부들이 제품의 질을 보장하려면 상벌을 옹계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생산자들이 제품의 질적 과제를 넘쳐 수행하였을 때에는 상금이나 장려금을 주고 불합격품을 냈을 경우 변상도 시켜야 한다”고 밝힘.

## 다. 사회·문화

### ● 北, 대동강·청천강 홍수위험 예보(7/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장마철 통보'에서 장마전선이 10~11일 평안도 청천강 유역에서 강해지고 평양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방에서 100~200mm, 일부 지역에서 300mm 이상의 폭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2일부터 15일 내리는 비에 의해 대동강의 대동교지점, 비류강의 성천, 청천강의 안주, 압록강의 신의주 지점들에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힘.

### ●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등장 1년...활약상 띄우기(7/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강성국가 건설의 대진군을 선도해 나가는 제일 나팔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란봉악단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대진군을 선도하는 제일나팔수"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시대정신 창조로 추동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모란봉악단이 형상한 모든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노래들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느낌과 열정, 낭만을 안겨줬다"며 모든 음악적 요소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우리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함.

### ● 北 '이순신 만화 만들자'...역사인물 애니메이션 장려(7/10, 연합뉴스; 조선예술)

- 북한 월간지 '조선예술' 6월호의 '영화의 장르와 형식, 형상수법을 새롭고 다양하게 개척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화영화 창작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한 캐릭터를 사용하기보다는 "강감찬, 이순신, 을지문덕과 같은 애국명장들"을 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 북한 그리스도교연맹 새 위원장 강명철 목사(7/10,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이 새 위원장에 강명철 목사를, 부위원장에 리정로 목사를 선출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강수린으로 교체(7/11,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1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회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올해 5월 8일 기준으로 ‘강수린’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등록됐다고 보도함.

● **北, 홍수 대비 댐·저수지 수위 조절(7/1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1일 “오늘까지 예견되는 비량(강우량)에 의하면 대동강의 대동교 지점에서 수위가 1단 유보도(강변 산책로), 4.6m를 넘어설 것”이라며 “서해 갑문호에서 사전 방출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도함.
- 방송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조건에서 대동교 지점의 수위는 계속 높아져 오늘 오후에 7~8m까지 높아지겠다”고 예상하면서 “임진강 유역의 예성호에 13일까지 2.5억㎥의 물이 들어와 수위가 정상 수위인 107m를 초과할 것”이라며 “사전에 물을 방출해 현재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北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강조(7/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건전한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머리단장을 고상하게 한다”며 “머리단장 하나를 해도 민족적 정서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도함.
- 신문은 “사회에 갓 진출한 처녀들이나 대학생들의 머리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머리 형태들인 단발머리, 땡은 머리로 단장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남자들이 머리를 보기 좋게, 짧게 깎고 다니면 고상하고 단정하고 패기와 정열이 넘쳐 보이며 혁명하고 투쟁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엿보게 할 수 있다”고 밝힘.

● **北, 마식령 스키장 건설 ‘지원열풍’ 선전(7/1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 건설사업을 돕기 위해 북한 전역에서 기관과 주민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방송은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적극적인 원호에 고무된 군인 건설자들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공원 일반에 개방(7/12, 조선신보)

-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이 지난 8일부터 일반에 개방됐다고 조선신보가 12일 전함.  
- 신보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년 남짓한 사이에 공원 건설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꽃 관목,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각지에서 보내왔다”고 전해 공사가 약 1년 전 시작됐음을 시사함.

● 北 “폭우로 사망 2명·이재민 760명 발생”(7/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의 중부지역에서 큰물(홍수) 피해가 발생하며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일 14시부터 11일 18시 사이에 내린 폭우로 2명이 사망했다”고 전함.  
- 통신은 폭우에 따른 주택 파손 및 침수 피해는 강원도 120채, 황해북도 19채, 평안남도 15채로 파악됐고 집을 잃은 주민은 760여 명이며 함경남도, 황해북도, 강원도에서는 농경지 1천 720여 정보가 물에 잠겼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최신과학도서 열독”…주민에 학습열 독려(7/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1면에 게재한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제1위원장이 당·정·군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바쁜 와중에도 김일성·김정일 ‘노작’(논문)과 함께 “세계적인 최신과학기술자료들, 다방면적인 상식들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한 김 제1위원장이 독서를 통해 “인민군대의 싸움준비 완성과 관련한 새로운 명안과 전술적 방안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세계적 견지에서 보면서 최첨단 돌파의 지름길을 밝혀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힘.

● 北, 보양식 소개…최고 인기음식은 보신탕(7/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의 삼복철과 보양음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삼복 철에 들어선 요즘 식당들에서는 더위를 막는데 좋은 보양 음식들이 손님들의 구미를 돋우고 있다”며 보양음식의 우수성을 상세히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장마전선 영향으로 9일 18시~10일 12시 사이에 평양 140mm 등(평안남도 회창군 157mm·평양시 상원군 149mm) 30여 지역에 100mm 이상 폭우(7.10,중통)
- 제27차 세계 대학생체육경기대회(러시아) 10일 경기성적 보도(7.11,중통·평방)
  - 흥은정(女)선수, 체조 조마(도마, 뒹uml)에서 금메달 획득 및 여자배구 조 1위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 아베정권 ‘일본인 납치문제 진전없다’ 결론(7/8, 아사히신문)

-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난 5월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북·일 정부간 협의를 다시 모색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함.
- 일본정부는 이지마씨 귀국후 회담기록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이지마씨 방북으로 3차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다시 북·일 정부간 협의를 모색키로 했으며 제재를 포함한 종래의 대북 정책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함.

#### ● 중국, 동해 북한 수역서 자국어선 철수 지시(7/8, 중국신문사)

- 중국 농업부는 지난달 28일 각 성(省)·시(市)에 긴급 통지문을 보내 올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원양어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면서 동해 북한 수역으로 출어한 자국 어선들에 철수를 지시했다고 중국신문사가 8일 보도함.
- 농업부는 모든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해서는 안 되며 일선 어업 당국이 이런 내용을 선사와 선주에게 알려 어선들을 즉각 철수시키고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함.

- 유엔사무총장 스포츠보좌관 방북, 北이 요청(7/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윌프리드 램케 유엔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방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부대변인을 인용해 9일 전함.
  - 에두아르드 델부이 유엔 부대변인은 RFA에 “램케 특별보좌관이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 중”이라며 램케 특별보좌관은 북한 고위 당국자와 여성·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日민방 “北, 병력 30만 줄여 경제부문 배치”(7/9, ANN)
  - TV아사히 계열의 민영 방송사인 ANN은 북한군 관계자에게서 취재했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난달 10일자로 전체 병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명을 줄이기로 한 명령을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 내렸다고 9일 보도함.
  - ANN은 8월 말까지 장교 5만 명, 병사 25만 명 등 총 30만 명의 병력을 빼내 경제부문으로 이동시키라는 것이 최고사령부의 명령이었다고 밝힘.
  
- 중국, 북한에 김정일 밀랍인형 선물(7/10, 중국신문사)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9일 베이징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밀랍인형 증정 의식’을 개최하고 북한 측에 밀랍인형을 전달했다고 중국 신문사가 10일 보도함.
  
- 北 “美, 한반도 대화 분위기 못마땅해하는 세력”(7/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란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 격화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려는 공화국(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라며 “이것을 못마땅해하는 세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조선의 핵억제력을 걸고 들며 그 때문에 세계평화가 위협당하는 듯이 떠드는 것은 궤변”이라며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의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 **북중우호조약 52주년…北, 양국 혈맹관계 강조(7/1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0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북중 우호조약을 “피로 맺어진 조중 친선을 영원히 공고 발전시켜나가려는 조선과 중국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중국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는 양국의 친선 협조 관계가 강화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함.
  
- **북한, ‘스노든 폭로’ 사태 反美 선전전에 적극 활용(7/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이후 “서방세계에서 일대 물의가 일어나고 불신과 대립의 파동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의 불법도청 의혹을 비판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서방세계를 이루는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삐걱대는 데 주목함.
  
- **케네스 배, 美고위급 방북으로는 석방안돼(7/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0일 ‘수감자 석방의 조건은 적대시 정책 포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북한) 측은 미국인에 의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정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의 정부와 언론은 조선이 배준호 사건을 정치적 흥정물로 써먹으려 한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조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세우고 있다”며 “정책 노선의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주재 中대사 “북중관계 안정적 발전 위해 노력”(7/10,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평양 옥류관에서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북중친선협회가 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2주년(7월 11일)에 즈음해 마련한 연회에서 “조선(북한)측과 친선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조(북중)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北, 평양 온실단지 건설 위해 中 투자자 모집(7/11, 자유아시아방송(RFA))**
  - RFA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투자 관련 기구가 제시한 대북 온실 투자자 모집 공고문을 입수했다며 북한이 평양시에 태양열을 이용한 축열벽 방식의 대규모 온실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인 합작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11일 보도함.
  - 투자형태는 합작 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측이 온실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채소 종자와 복합비료, 유동자금 등을 제공하고 북한 측은 온실 부지와 건설 인력, 전력, 온실 운영 인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투자규모와 기한, 수익 분배 등은 협상을 거쳐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임.
  
- **국제구호단체, 北어린이 43만명 일본뇌염 예방접종(7/11, 연합뉴스)**
  - 국제구호단체인 독일카리타스가 이달 2일 북한 황해남도 지역의 2~4세, 9~16세 어린이 43만명에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독일카리타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4단계에 걸쳐 북한의 2~16세 어린이 가운데 지난 2009~2010년 예방접종을 마친 5~8세를 제외한 총 32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북중우호조약 52주년…北 “친선강화에 노력”(7/11,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우호조약 52주년을 축하하려고 마련한 연회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북중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강하국 보건상 등 북한 고위층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강 보건상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다”고 말했으며 류홍차이 대사는 “지난 52년간 두 나라는 조약의 정신에 맞게 서로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중조친선관계의 부단한 발전을 추동했다”고 평가함.

- **FAO “10월 수확전까지 北 280만명에 식량원조해야”(7/12, 연합뉴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곡물 작황과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곡물 45만9천100t을 수입하고 국제사회에서 26만 6천 400t을 지원받아 총 72만 6천t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FAO는 그러나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개선되고, 올 상반기 수확량도 평균에 가까웠지만 고질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오는 10월 수확기 이전까지 약 280만 명이 식량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북한산 무연탄 품질 저하”…中업계에 ‘주의보’(7/12, 연합뉴스)**
  -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무연탄의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를 수입하는 중국의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중국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한 측과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연탄의 품질을 결정하는 회분(불연성 광물질) 함량이 15~17%였는데 실제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량을 검사하면 회분 함량이 18~21% 달한다”면서 “이런 경우 북한 측에 요구해 값을 깎거나 그대로 반송하기도 한다”고 말함.
  
-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 15일 방북(7/13, 미국의소리(VOA))**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방송은 한반도관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방북 기간 외무성과 보건성, 농업성 부상을 차례로 면담하고 북한군 고위급 인사와도 만날 것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개성과 판문점, 함흥 지역을 방문하며 18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관심 속에 개발이 한창인 강원도 원산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 **美 CIA “북한 인구 7월 현재 2천 472만 명”(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7월 기준으로 현재 북한의 인구가 2천 472만 407명이며 239개 국가 중 49위에 해당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北인권법 통과 후 美입국 탈북난민 159명(7/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이달 초 발표한 ‘난민입국보고서’를 인용해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3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2004년 이후 난민으로 수용한 탈북자는 현재까지 모두 1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駐유엔 北 상임대표의 ‘유엔사 해체’ 발언(6.21)을 거론 ‘구성실태 및 운영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요구’라며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7.8,중통·민주조선)
- 美 당국의 北-美대화를 위한 전제조건 발언(北,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진정성 있는 대화) 관련 ‘우리(北)의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여론전이며,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준비 책동’이라고 비난(7.9,중통·노동신문)
- 日 방위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500km) 개발에 대해 “조선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재침전쟁 도발을 기도하고 있다”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길은 곧 일본의 종국적 파멸”이라고 주장(7.9,중통·민주조선)
- 제네바 유엔사무국 駐在 北 상임대표(서세평), 7.10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駐韓 유엔군 사령부 해체’ 요구 및 ‘미국이 對北 제재압박을 강화할수록 자위적 핵무장력 더욱더 보강해 나갈 것’ 천명(7.13,중통·중방)
- ‘美 하원,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결의안 발의’ 내용(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北 핵무기 등) 관련 ‘분열의 장본인이며 통일의 방해자인 미국이 조선반도 분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궤변’이라며 재차 ‘미군철수’ 주장(7.14,중통·노동신문·평방)

## 나. 6자회담(북핵)

- 北, 南 북핵 국제공조 노력은 “반민족 대결망동” 비난(7/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ARF 외교장관회의 기간 윤 장관의 행보를 거론하며 “민족의 자위적 억제력 문제를 국제무대에까지 들고나가 추태를 부리는 것은 외세의존과 사대 매국이 체질화된 자들의 반민족적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남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을 추종하고 있다며 “(남한과 미국이) 전쟁 도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핵으로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청산 없이 그 누구도 민족의 생명이고 재보인 우리의 핵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다”고 덧붙임.

### 기타 (6자회담(북핵))

-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7.9 러시아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알렉세이 푸슈코프)과 면담 후 평양 도착(7.9,중통·중방)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SOFA 체결일 맞아 “불평등 예측관계 청산돼야”(7/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불평등한 예측관계는 청산돼야 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고 미군의 전횡과 범죄를 묵인하는 현대판 노예문서”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 불평등한 협정을 코에 걸고 지난 47년간 미군은 남조선에서 폭행과 강탈, 살인과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일삼으며 실질적인 지배자로, 치외법권적 존재로 군림해왔다”고 비난함.
  - 또한 남한 당국이 SOFA를 철폐하는 대신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등 “친미사대적이며 굴욕적인 외세의존정책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는 SOFA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금강산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의(7/10, 연합뉴스)**
  -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오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은 19일 개최할 것을 제의 하면서 두 실무회담의 장소로 금강산 또는 개성을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우리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19일 적십자 실무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북측에 수정 제의했으나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이산상봉·금강산관광 회담 모두 보류(7/11, 연합뉴스)**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후 6시께 전통문을 통해 2개 회담 모두를 보류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면서 “(보류 이유는) 개성공단 문

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알려왔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北 “국정원, 남북관계 저해하는 암적 존재” 비난(7/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에서 “신성시돼야 할 북남 정상의 대화록이 정보원(국정원)과 같은 모략기관에 의해 당리당략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모략사건을 시도한 장본인도, 반공화국 뼈라 살포와 공화국 주민 유인납치에 광분하는 것도 정보원”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실명을 거론, “동족대결에 이끌이 난 자”라고 비난하면서 “현 남조선 집권자가 남재준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동족대결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고 이번 대화록 공개도 그 연장선에서 연출됐다”고 지적하고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대화록 공개의 죄악을 민족 앞에 사죄하고 정보원을 당장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회담 보류 전통문 공개…남북관계 속내 ‘노출’(7/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측이 이틀 전 우리 측에 보낸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회담 관련 전통문 전문을 뒤늦게 공개함.
-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이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측이 “북남 적십자 실무 접촉에는 동의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핵심사안이고 그의 우선적 협의해결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함.
- 또한 두 회담을 모두 보류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 제기한 회담과 접촉문제들은 개성공업지구 회담에 달려있다고 본다”라며 “개성공업지구문제는 말그대로 현 북남관계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공단 정상화’ 이전…南 재발방지 후 vs 北 조속히(7/10, 연합뉴스)

- 남북 양측이 10일 개성공단에서 가동중단 상태인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마주앉았지만 합의 없이 끝났으며 오는 15일 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의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돼야 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확약을 강조해 양측 간에 이견을 보임.

### ■ 기타 (대남)

- 우리 외교부 장관(ARF기간 한·미·일 회담)과 외교안보수석(고위급 안보회의, 러시아)의 ‘북핵 외교’에 대해 “뺏속까지 외세의존과 사대매국 의식이 들어찬 자들의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지속 비난(7.9,중통·민주조선)
- 개성공단 ‘제2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 7.10 진행(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측의 무성의한 입장과 태도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 주장 및 ‘7월15일 제3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신속 보도(7.10,중통·평방)
- 「중통 논평」 통일부 대변인의 ‘北, 차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7.1, 「조평통」 대변인)’ 관련 ‘매우 유감’ 표명 등 브리핑에 대해 “북남관계 악화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궤변” 등으로 재비난(7.10,중통)
- [중통社 논평]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남측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말살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대가로 보수패당을 비롯한 소수특권층의 무제한한 권력과 치부를 보장하는 반인민적·파쇼정치’라고 비난(7.11,중통)
- 대통령 訪中 발언(‘새로운 남북관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 등) 관련 ‘외세의 힘을 빌어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 보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7.11,평방)
- 「중통 논평」 국정원의 지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지속 거론 비난 및 “괴뢰정보원은 모락의 소굴, 동족대결의 본거지”라고 ‘국정원 해체’ 선동(7.13,중통)
- 韓·美,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 진행 관련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날강도의 횡포’라며 ‘친미사대매국노들의 추악한 민족반역행위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비난(7.14,평방)

7.15-7.21

7월

3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일심단결 위력으로 ‘전승절’ 경축하자”(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승절’(정전협정일·7월 27일) 60주년을 “승리자의 축전으로 빛내자”고 독려하며 일심단결을 강조함.
  - 신문은 사설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는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승리”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올해 7·27을 선군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역사적 계기로 되게 해야 한다”고 독려함.
- **北 김정은, 軍 후방총국 산하 버섯공장 시찰(7/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에 새로 건설된 버섯공장을 현지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곳을 시범으로 군대와 사회에서 버섯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이런 버섯공장을 나라의 곳곳에 건설해 우리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김일성)의 유훈을 관철해야 한다”고 지시함.
- **北 김정은, 아동병원·구강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7/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새로 건설하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건설은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을 시위하고 당의 보건정책을 옹호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건성과 해당부문 간부들이 건설현장에 자주 나와 의료 설비와 비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병원 운영 및 관리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함.

- **北, 김정은 원수칭호 수여 1주년 맞아 ‘지도력’ 부각(7/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1면 전면에 김 제1위원장이 군 수뇌부와 함께 있는 사진과 ‘위대한 백두영장을 높이 모신 선군 조선은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함.
  - 신문은 김정은 원수 칭호 수여를 “특기할 민족사적 대경사”라며 “영도자의 위대성은 사업 연한(기간)이나 직위가 아니라 영도적 자질과 조국과 인민 앞에 이룩한 업적으로 과시된다”고 강조함.
  
- **北 조선중앙통신 사장에 김창광 임명(7/1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의 신임 사장에 김창광 제1부사장이 승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북 중인 아버지 바파르호야그 몽골 몬짜메통신사 사장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하며 이 자리에 배석한 김창광을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인터뷰 100만달러 요구설’은 “모략 보도”(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60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추진하면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모략”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반박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조선일보를 지목하고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 들면서 전승 60돌을 계기로 서방언론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느니,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느니 뭐니 하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모략보도를 붙여댔다”고 비난함.
  
- **北 김정일인민보안대학에 김정일 동상 설치(7/19,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경찰대학과 비슷한 북한 김정일인민보안대학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동상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창일 김정일인민보안대학 학장 등이 참석함.

-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은 제막사에서 “장군님(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는 제도의 안전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보위해나가는 핵심골간들을 키워내는 담보가 됐다”고 칭송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北, 김일성·김정일에 정전 60년 기념훈장 수여(7/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정전협정 체결·7월 27일)을 기념하는 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일 훈장 수여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으며 김 주석에 대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만고의 전설적 영웅”이라고 칭송했고, 김 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확립해 조국수호와 반제 반미투쟁의 ‘보검’을 마련했다고 주장함.

● 北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에 한광상 승진 임명(7/21, 연합뉴스)

- 북한의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에 한광상 당 제1부부장이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부상한 한광상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이 작년 5월께 재정경리부장으로 승진한 것 같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여동생은 ‘국방위 과장’…향후 역할 주목(7/2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26)이 현재 최고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의 행사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김여정은 작년 초부터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공식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그는 김정은의 의전을 관장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창선 국방위 서기실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정전 기념일 1주일 앞두고 본격 분위기 띄우기(7/2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21일 1면을 통틀어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0돌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작품’이라며 전승절 기념곡 4곡의 악보와 가사를 게재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방송되는 TV 채널인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의 악단인 모란봉악단 등이 연주한 전승절 기념곡 4곡을 반복해서 내보내며 전승절 분위기를 고조함.

■ 김정은동향

- 7/1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 현지지도(7.16,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전창복,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마원춘 동행
- 7/16, 김정은 黨 제1비서, 7.16 새로 건설 중인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건설장 현지지도(7.16,중통·중방·평방)
  - 박봉주·리재일·마원춘·허환철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 내각 총리, 아동병원·구강병원 건설장 및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와 문수물놀이장 현지요해(7.19,중통·중·평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7.10자) 제3245-3246호, 김일성·김정일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7.27, 정전협정 체결) 60돌 기념훈장” 수여(7.20,중방·중통·평방)
  - 지난 50년간 세계 5대륙에서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을 “국제적 연대성운동(백두산 장군들에게 6,300여건 편지·축전 등 전달, 190여개 나라에서 1만 5,000여건 성명·호소문 등 발표, 2만 여회 연대성 행사 등)으로 지지 성원” 주장(7.20,중통)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협동농장·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은률군 장련협동농장·관해협동농장의 농업실태 현지요해(7.21,중통·평방)

나. 군사

● 北, ‘전승절’ 앞두고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다시 부각(7/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5일 오후 7시 30분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 미군을 살해한 북한군 군인을 칭송하는 내용의 ‘도끼사건의 주인공으로 영생하는 전사, 공화국영웅 홍성문’이란 제목의 영상물을 방영함.

- 당시 북한 간부들은 미국이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 경비병들을 표창할 생각을 못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후계자 신분으로 “우리 경비병들의 행동은 자위적인 행동이고 자랑할만한 영웅적 행동이었다”라고 치하하며 이들을 높이 표창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중앙TV가 전함.

● 北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에 임명 확인(7/18, 연합뉴스; 평양방송)

- 북한의 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평양방송은 18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전승업적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에서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해 토론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국제학술지에 투고해야”…각 분야 국제화 강조(7/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9일 김일성종합대가 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깊이 파악한 데 기초해 교과서, 참고서를 새로 집필하는 사업,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과목들을 개척하는 사업 등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대학교원들이 국제학술잡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국제학술토론회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에 힘쓰는 한편 다른 나라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애국미 헌납’ 모범사례 대대적 선전(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충정의 애국미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각지의 수많은 당원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나라에 바치고 있다며 “(지난해) 농사를 잘 지은 남포시 학천농장 농민들은 김제원 농민의 넋을 이어갈 결심 밑에 10t 800여kg의 알곡을 애국미로 기증했다”고 밝힘.

- **北, 최고 300mm 호우 경보…임진강 등 홍수 우려(7/1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오전 9시 14분 발표한 ‘장마철 통보’에서 “오늘 서해안 지방과 자강도·함경남도·강원도 지방에서 100~20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평안북도 태천·운산 등 청천강유역과 성천·양덕·북창·맹산 등 평안남도의 내륙지방, 금천·신평·곡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내륙지방에서는 3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리겠다”고 예보함.
  
- **북한 비 피해 늘어…“13~15일 사망 4명·실종 1명”(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13일 18시부터 15일 18시 사이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180여 채의 살림집(주택)이 파괴·침수됐고 황해북도에서는 820여 정보의 논과 밭이 침수 또는 매몰됐다고 밝힘.
  
- **北도 온난화…“최근 5년 기온, 평년보다 0.3도 높아”(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기상수문국을 인용, 북한은 근년에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졌으며 태풍, 폭우, 홍수, 가뭄, 강추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많았다고 전함.
  - 통신은 “지난 5년간 조선의 연평균 기온은 8.5도로 평년에 비해 0.3도 높아졌다”며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0년에 평균 0.074도씩 올라갔지만 북한의 경우 0.2도씩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2017년에는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0.5도 높아져 9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폭우에 의한 큰물(홍수)과 태풍, 해일 등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의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힘.
  
- **北, 외래어 배경 강조…“평양표준어 쓰자”(7/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우리의 언어생활과 평양문화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인간의 건전한 녀을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의 한 고리가 민족어 말살책동”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의 문화어를 저들의 언어찌꺼기로 이질화시켜 보려는 적들의 책동은 결코 통할 수 없다”며 “표준문화어, 평양말을 쓰는 것이 우리의 문화생활 원칙”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 독일 맥주집 유치하려다 ‘퇴짜’(7/19, 빌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에 양조장을 갖춘 야외 맥주집 ‘비어가르텐’을 열어달라고 독일 맥주회사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독일 일간지 빌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독일 맥주회사인 파울라너(Paulaner)는 이 신문에 이미 12곳에 새로 비어가르텐을 낼 계획이어서 수용 능력이 찼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함.

## 2 대외 관계

- **중국 단둥서 북한 어민 4명 잇따라 구조(7/15, 신화망)**
  -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동강(東港) 앞바다에서 최근 북한 어민 4명이 잇따라 구조됐다고 신화망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단둥 변방지대(국경수비대)는 14일 새벽 동강 앞바다에서 소형 목재 어선에 탄 북한 어민 2명이 손전등으로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중국 어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이들을 구조했으며, 변방지대는 이들 북한 어민이 지난 12일 오후 모선(母船)에서 떨어져 나와 고기잡이를 하던 중 짙은 안개에 방향을 잃고 이틀간 표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美농구단, 北 무리한 요구로 재방북 취소(7/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농구단이 올해 재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방북을 취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전직 프로선수 출신 미국인 코치들의 봉사단체인 ‘국제감독단’을 꾸려 작년 6월 방북했던 루크 엘리 대표는 이 방송에 “올 6월 평양에서 농구교실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방북 계획을 취소했다”며 “북한 당국이 체육관 사용료와 친선 경기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의 일당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힘.
- **北 주도 국제 태권도대회에 美 선수단 참가(7/16, 자유아시아방송(VOA))**
  - 이달 17~21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주최 ‘제18회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 4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이뤄진 미국 선수단이 지난 13일 출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 보도함.
- **일본 납치담당상, 26일 베트남 방문…대북포위망 구축(7/16, 산케이(産經)신문)**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이 베트남의 정부 요인과 공안 담당 간부를 만나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26일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6일 보도함.

- **중국 매체 “대북무역상들, 미수금 증가에 고통”(7/16, 환구시보(環球時報))**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북·중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발 기사에서 북한에 물품을 판매한 조선족 등 중국 무역상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평양에 가서 몇 달씩 머물며 빚 독촉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단둥의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북한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20여개 상사와 거래했는데 관계가 좋아 외상으로 물건을 주기 시작한 게 화근이 됐다”면서 “북한 무역회사들은 ‘지도자가 바뀌었다’거나 ‘값을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아예 회사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파나마 미사일부품 선적 의심 北선박 적발…선원 구금(7/16, 연합뉴스)**
  - 리카르도 마르티넬리(61) 파나마 대통령은 “쿠바에서 출발한 북한 국적 선박이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미신고 물품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 밀반입하려고 했다”고 ‘라디오 파나마’와 ‘RPC 라디오’를 통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문제의 선박에 마약이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구로 인도, 조사하는 도중 “설탕이 실려 있는 것을 걷어내자 밑에 있던 컨테이너 2개에서 정교한 미사일 장치로 보이는 화물이 발견됐다”며 “이런 물품은 (파나마 운하로의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美 리처드슨 전 주지사, 北 장일훈 차석대사 면담(7/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내 대표적 친북 인사로 알려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지난주 뉴욕에서 최근 부임한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만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리처드슨 전 주지사 측은 장 차석대사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정기적으로 북한에서 온 관리들은 만나고 있으며 이러한 만남의 목적은 미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전함.

- **국제사회, 제재와 별도로 대북 인도적 지원 이어가(7/17, 미국의소리(VOA))**
  - 유엔아동계획(유니세프)은 올해 북한 교육분야 지원을 위해 예산 107만 달러(약 12억원)를 책정해 14개 학교·유치원의 설비를 보수하고 어린이 3만5천명에게 교재와 학습도구를 지원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도 작년 여름부터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고아원 3곳의 어린이 750여명에게 영양보조식품과 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이후 발육 부진 어린이가 줄어들고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사라졌다고 밝힘.
  
- **중국, 대북교역·경협 둔화 지속(7/17, 환구시보(環球時報))**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중국 대북무역총액의 80%를 차지하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1~4월 단둥의 대북수출총액이 2억8천만달러(약 3천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했다고 전함.
  - 단둥의 무역 담당자는 “중국의 대북수출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국의 대외수출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올해는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함.
  
- **北, 파나마에 ‘억류 선박’ 즉시 출항조치 요구(7/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아바나항을 출항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우리 무역선 청천강호가 마약운반이라는 혐의로 파나마 수사 당국에 억류당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파나마 당국은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배를 지체 없이 출항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파나마 수사 당국은 마약 수사라는 미명 하에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난폭하게 공격하여 구류한 다음 배짐을 강제로 수색하였으나 그 어떤 마약도 발견하지 못하자 다른 짐을 걸고 들면서 저들의 폭거를 비호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선박에서 발견된 미사일 부품 등과 관련해 “그들이 걸고 드는 짐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수리하여 다시 쿠바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고 설명함.

- **유엔, 북한에 600만 달러 긴급구호 지원 결정(7/18, 미국의소리(VOA))**
  - 유엔이 북한에 긴급 구호자금 600만 달러(약 67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18일 전함.
  - OCHA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 유엔 상주 조정자인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과 협의해 600만달러 예산에 맞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결정할 계획임.
  
- **상반기 中 방문 북한 주민 10만명…작년보다 12% 증가(7/18, 미국의소리(VOA))**
  - 중국 국가여유국이 17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9만9천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8천800명)보다 12%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중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이번 통계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을 계한 것으로, 탈북 등 비공식 경로로 중국에 들어온 사람까지 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북한, 중국서 송충이 방제·식용화 기술 전수(7/18, 화합승덕망)**
  - 중국 허베이(河北)성 지역 인터넷 매체인 화합승덕망(和合承德網)에 따르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삼림병충해관리국 최종호 국장 일행이 최근 허베이성 평취안(平泉)현을 방문해 북한이 송충이로 인한 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송충이 번데기 채취와 식용화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다고 밝힘.
  
- **유엔, 미사일 부품 선적 북한선박 긴급 현장조사(7/18, 연합뉴스)**
  - 유엔의 한 소식통이 18일(현지시간) “북한제재위원회가 국제적 논란을 빚는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소식통은 “이번 현장조사는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파나마와 북한의 주장 가운데 어느 측의 얘기가 맞는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조사단은 5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모두 8개국에서 파견한 8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 속한 한국인 전문가도 이번 조사에 참여할 예정임.
- **北 TV, 1960년대 쿠바와 우호관계 부각…왜(7/1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TV가 1960년대 북한과 쿠바의 ‘혈맹’ 관계를 부각하는 영상물을 새삼스레 내보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조선중앙TV는 18일 오후 7시 30분께 1960년대 쿠바 주재 북한 대사를 지냈던 장정환의 일대기를 다룬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어’란 제목의 영상물을 방영함.
    - 중앙TV는 영상을 통해 1960년대 중반 쿠바의 정세가 매우 긴장했다며 당시 김일성 주석이 쿠바를 도우려고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취했다고 전함.
- **중국 옌지-평양 관광 전세기 21일 운항 재개(7/19, 연변일보)**
    - 중국 지린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와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오는 21일 운항을 재개한다고 연변일보가 19일 보도함.
    - 지난해 7월 정식 개통해 10월까지 3개월가량 운항한 옌지~평양 전세기 노선은 올해부터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일시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 시기가 미뤄져왔음.
- **北, ‘반미투쟁 역사’ 선전…평화체제 필요성 강조(7/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푸에블로호 사건, 미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 정찰헬기 격추 사건 등의 ‘반미투쟁의 역사’를 언급하며 “전후 60년 동안 벌어진 반미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역사가 빛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 **北 홍수피해 속출…국제적십자사 실사단 파견(7/1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며칠째 계속되는 폭우로 강원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황해북도 토산군 북포리라고 밝힘.
  - IFRC는 북포리의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량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일 현지에 긴급 실사단을 파견했으며 현재까지 90가구가 집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임.
  
- **북·러 공동선언 13주년…“친선협력 강화해야”(7/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을 추동한 역사적 계기’라는 제목의 ‘기념논설’에서 북·러 공동선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변”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회의 10월 몽골 개최(7/19, 유비 포스트(UB POST))**
  - 올해 10월 29~31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회의가 열린다고 몽골의 영자신문 ‘유비 포스트’(UB POST)가 19일 전함.
  - GTI는 동북아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의체이며 올해 회의는 GTI 프로그램의 법적 위상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GTI가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를 평가할 것이라고 ‘유비 포스트’는 설명함.
  
- **北-러시아 아르츰시 스포츠·문화교류 확대(7/20, 자유아시아방송(RFA); 프리마미디아통신)**
  - 북한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아르츰시가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프리마미디아통신을 인용해 20일 전함.
  - 프리마미디아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노비코프 아르츰 시장은 지난주 립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를 만나 북러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스포츠와 문화, 예술 교류의 확대를 제안함.

● 北 ‘전승절’ 행사에 BBC 등 외국언론 참석(7/21, 러시아의 소리)

-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기념행사에 해외 주요 언론사를 비롯한 외국 사절단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러시아의 국영 라디오방송인 ‘러시아의 소리’가 21일 보도함.
- 러시아의 소리는 이달 22일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아리랑’의 새로운 공연이 선을 보인다면 이번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 주요 언론을 포함한 해외 언론사들이 참석한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美 의회조사국(CRS) 보고서(北 미사일 위협에 亞-太지역 동맹국들의 탄도미사일방어 구축 협조) 관련 “저들의 군비증강을 합법화하며, 잠재적 적수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여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음흉한 전략적 기도”라고 주장(7.16,중통)
- [北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7.17)]파나마정부에 억류된 ‘청천강’호와 선원들 관련 “결고드는 짐은 합법적 계약에 따라 수리하여 다시 쿠바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며 ‘억류된 선원들과 배의 출항’ 요구(7.18,중통)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南에 정책전환 촉구…“대결상태 끝내야”(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대결상태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불신하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정책전환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지난 6월 남북당국회담이 남측이 제기한 ‘격’ 문제로 결렬된 데 이어 제2차 실무회담도 남한의 성의없는 태도로 성과가 없었다며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킨 요인”이라고 비난함.
  
- **北 “국정원 개혁은 유치한 기만극…해체해야”(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정보원 개혁은 유치한 기만극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 정보원의 대신 개입과 수뇌상봉 담화록 공개로 수세에 몰린 남조선 당국이 민심 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개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체개혁을 주문한 것은 “기소된 범죄자에게 죄를 따지는 대신 장차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합법화할 방도를 미리 모색해 두라는 것이나 같은 소리”라며 “나아가 그를 비호하고 범죄자와 한쪽이 돼주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함.
  
- **北방송,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비난(7/19, 평양방송)**
  - 북한은 19일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비난함.
  - 방송은 “괴뢰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더 연기함으로써 미제의 남조선 영구강점에 구실을 마련해주고 미제와의 군사적 공조를 더 강화하여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8월 한미군사훈련 하면 한반도정세 또 파국”(7/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다음 달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와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오는 8월 미국은 또다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며 UFG가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가 파국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위협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금강산댐 오후 6시 방류계획’ 南측에 통보(7/15, 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금강산댐(북측 이름 임남댐)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오후 6시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불발…남북, 17일 4차회담(7/1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남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서 제3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으며 오는 17일 4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열어 재발 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또한 조선중앙통신도 별다른 논평없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북남당국 실무회담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었다”며 “회담에서 쌍방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의견들을 교환하였다”고 전함.
- 우리 대표단은 이날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측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시 없이 이른 시일 내의 공단 재가동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을 우리측에 돌리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짐.

● **개성공단 회담 또 합의 실패…22일 5차회담(7/17, 연합뉴스)**

- 남북한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제4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또다시 회담을 종료했으며 오는 22일 5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열어 재발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합의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재발방지 보장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관련해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힘.

● **개성공단 근로자 외화벌이 동원설, 사실 아니다(7/17, 연합뉴스)**

-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일이 없어진 북측 근로자들이 외화 벌이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4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위해 내려온 한 북측 연락관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농번기 모내기 같은 작업에 다 가서 일했다”서 “공단이 가동 안 돼도 강성국가 사업에 도움이 돼야지”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北, 개성회담 南태도 비난…“문제해결에 난관 조성”(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전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회담 소식을 보도하며 “남측은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주장함.
- 통신에 따르면, 남측은 말로는 개성공단 정상화하자면서도 합의서 초안 조차 준비해오지 않았으며 “회담을 공존시키면서 회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하였다”고 지적함.
- 한편, 북측은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중단사태’ 재발방지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통행·통신·통관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함.

● **北매체, 女축구 남북대결 승리 신속 보도(7/21,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1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선수권대회(동아시안컵) 여자부 1차전에서 북한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을 꺾고 승리한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함.
- 통신은 경기가 종료되고 불과 1시간도 안 된 오후 8시 55분 ‘조선팀, 남조선팀을 2:1로 타승’이라는 제목으로 승리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도 잇따라 승전보를 전함.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남북 당국실무회담’, 7.15 개성공단에서 진행 및 ‘제4차 남북 당국실무회담’, 7.17 개성공단에서 개최 예정 보도(7.15,중통)
- 北,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필수적 문제’라며 ‘남북 대결상태 해소’와 ‘민족의 대단결’ 강조(7.15,중통·노동신문)
-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거론하며 “민심기만과 정치교란을 집요하게 일삼는 정보원패거리들”이라며 ‘국정원 해체투쟁’ 지속 선동(7.15,중통·중방·노동신문)
- 韓-美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의(7.2, 워싱턴) 결과에 대해 “미국의 오만무례한 강도적 전횡(분담금 50% 인상 요구)과 괴뢰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 근성을 드러내 보였다고 시비 및 ‘미군 철수’ 선동(7.16,중통·민주조선)
- [중통 논평]차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지시에 대해 “민심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국정은 개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7.18,중통)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22-7.28

7월

4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전승절’ 축하 시리아 대표단 접견(7/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4일 ‘전승절’(7월 27일·정전협정 체결 일)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시리아 대표단을 접견해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김기남·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대동하고 압둘라 알 아흐마르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를 비롯한 시리아 대표단을 만났으며 하이삼 사아드 북한 주재 시리아 임시대리대사도 배석함.
  
- 北, 인민군열사묘 준공식 중계…김정은·김경희 참석(7/25,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오후 2시부터 10분간 평양시 연못동 입구에 건설한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의 준공식 장면을 내보냈으며 준공식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함.
  
- 北 김정은·중리위안차오 아리랑 공연 함께 관람(종합)(7/27, 교도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6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 일·7월 27일)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 중인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 부주석과 함께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리 부주석과 나란히 앉아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전승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60주년인 27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영생홀에서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이번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격식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참석함.
  
- **北, 정전 60주년 대규모 열병식…신형무기는 없어(종합3보)(7/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6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이 정전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며,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가 공개되지는 않음.
  - 오전 10시께 시작한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리 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섰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김기남 당비서 등이 함께함.
  
- **北, ‘전승절’ 맞아 판문점서 이례적 무도회(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군인들이 60주년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노래 공연과 무도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공연에서는 전승절 기념곡인 ‘7·27 행진곡’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찬양곡인 ‘발걸음’이 무대에 올랐으며 ‘경축의 춤 바다’가 펼쳐졌으며 군인들의 구호와 노랫소리가 “판문점의 하늘 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전승절’ 기념 불꽃놀이 관람(7/27,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저녁 평양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함.
  - 중앙TV ‘우리는 승리하리라’라는 제목의 이번 행사는 평양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것을 생중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야외에 마련된 관람석에 자리했고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은 김 제1위원장 바로 옆에서 행사를 관람함.
  
- **北 ‘전승기념관’ 개관식…김정은·中리위안차오 참석(7/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전승기념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개관식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의 고위 간부가 참석했으며 중국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과 위젠우(于振武) 전 인민해방군 공군 사령관도 주석단에 자리를 함께함.
  
- **北 김정은, 정전기념일에 외신기자들과 첫 접촉(종합)(7/2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행사에서 최고지도자 승계 이후 처음으로 외국기자들과 접촉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뉴스 개관식이 열린 ‘전쟁승리기념관’ 안에서는 지원군전람관 참관을 마친 김 제1위원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외신기자들 쪽으로 다가오면서 김 제1위원장과 외신기자들 사이에 첫 접촉이 이뤄졌다고 밝힘.

#### ■ 김정은동향

- 7/25, 김정은 黨 제1비서, 7.24 ‘전승’ 60돌 경축행사 참가 차 방북하고 있는 시리아 대표단(단장 : 압둘라 알 아흐마르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접견(7.25,중통)
- 김기남·김양건(당중앙위 비서),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駐北 시리아 대사 참석
- 7/25,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下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500여명 안치)” 건립(평양) 준공식, 7.25 현지 진행(7.25,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준공식 시작 선포), 최태복,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조연준 및 전쟁노병 대표 등 참석
- 7/26, 김정은 黨 제1비서, 7.25 중국 부주석 '리원조(李源潮, '리위안차오)' 등 北 「전승절(7.27, 정전협정 체결)」 60돌 행사 참석 중국 정부 대표단 접견 및 '시진핑(중국 주석)의 "구두친서" 접수(7.26,중통·중방·평방)
-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및 '장업수', '가정안', '진봉상', '병지강', '진위근', '류홍재' 등 배석
- 7/27, 김정은 黨 제1비서, 7.26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7.27,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등과 여러 나라 대표단 및 대표들, 駐北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함께 관람
- 김정은, 7.26 중국 '리원조' 부주석 등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 접견(7.27,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참가
- 7/27, '전승' 6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7.26 김정은 黨 제1비서 참가下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 (7.27,중통·중·평방)
- 김영남(보고), 박봉주, 최룡해(개회선언),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 등과 중국 부주석 '리원조'를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 참가
- 7/27, 김정은 黨 제1비서, 7.27 '전승' 60돌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27,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김영춘, 김원홍 참석
- 7/27, '전승' 6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7.27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7.27,중·평방·중통)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경축연설),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김국태,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와 중국 '리원조' 부주석 등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 참석
- 초대석 : 재일본조선인총합단 등 해외동포대표단과 동포들, 『반제민전』평양지부 대표 참석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7.27 김정은 참석下 전승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7.27,중·평방·중통)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개관사), 김기남(사회), 중국 '리원조' 부주석 등 참석
- '전승' 60돌 경축 '축포야회'(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7.27 김정은 참석下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광장에서 진행(7.27,중·평방·중통)
  - \* 개성시 '축포야회'도 7.27 진행(7.28,중통)
- 전승' 60돌 경축연회, 7.27 김정은 참석下 목란관에서 진행(7.28,중통·중방)
  - \* 최룡해(연설),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김영춘, 강석주, 김원홍, 김양건, 최부일 등 참석
  - \* 당 중앙군사총과 국방위원회에서도 7.27 옥류관과 청류관에서 연회 마련(7.28,중통)
  - \* 김영남·박봉주(연설), 중국 대표단, 『반제민전』평양지부 대표 등 참석

■ 기타 (대내 정치)

-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7.26 대성산혁명열사능·애국열사능·우의탑과 해방탑에 헌화(7.26,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등 참가
- 중국 정부대표단과 양형섭·김양건 등, 7.26 우의탑에 헌화(7.26,중통·중·평방)
- 러시아조선전쟁노병대표단, 7.26 해방탑과 소련군열사들 묘(평양시 사동구역)에 헌화(7.26,중통)
- 우간다고위군사대표단·몽골정부군사대표단·모잠비크군사대표단·베트남군사대표단·이란군사대표단·탄자니아군사대표단, 7.26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헌화(7.26,중통)

나. 군사

● 북한군, 정전 60주년 맞아 충성 결의대회(7/24, 조선중앙TV)

- 북한군 장병들이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주년을 사흘 앞둔 24일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결의대회 보고를 통해 “전군에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서해NLL 관할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에 임명(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 출신의 변인선 상장(우리의 중장)이 인민무력부 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방송을 인용해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국방위원회가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중국인민지원군 노병(6·25 참전군) 대표단 등을 위한 연회를 전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었고 연회에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리창근 노동당 부부장,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 다. 사회·문화

- **北, 공원·유원지관리법 제정…투자확대 명시(7/22, 연합뉴스; 민주조선)**
  - 민주조선이 이달 9일과 13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공원·유원지 관리법을 제정했다며 법 조항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확인·보도함.
  - 5개 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공원, 유원지 관리사업의 기본원칙 및 건설, 관리운영, 이용, 지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 유원지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전승절’ 기념곡 창작자 7명에 훈장(7/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2일 1면에 게재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89호는 전승절 기념곡인 ‘7·27 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창작자 7명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밝힘.
- **북한판 ‘걸그립’ 모란봉악단, 첫 공훈배우 배출(7/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모란봉악단 배우 류진아에게 공화국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이 21일 발표됐다”고 밝힘.
- **북한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착수(7/22, 노동신문)**
  -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노동신문은 22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단위들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국경 역, 항만, 비행장에서 위생검역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김정은 배지, 작년 초 두 종류로 제작(7/22, 연합뉴스)**
  -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 2명은 22일 제5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린 개성공단에서 남측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의 초상휘장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있다. 2012년 초에 만들어졌다. 동그란 모양과 네모난 모양 2가지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北, 7·27 맞아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개막(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7월 27일)을 맞아 22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北 평남 안주시 80% 침수…이재민 1만여명(7/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지난해 장마철 홍수로 큰 피해를 봤던 평안남도 안주시가 올해도 또다시 물에 잠겼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프랜시스 마커스 동아시아 대변인 안주시의 80%가 물에 잠긴 것으로 보고됐으며 청천강 범람으로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이들을 위한 대피소와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면서 IFRC가 방수막과 물통, 수질정화제, 위생용품 등을 안주시에 보낼 것이라고 말함.
  
- **北, ‘전승절’ 맞아 대규모 포상 잔치(7/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국해방전쟁(6·25전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전후 건설에 크게 공헌한 항일의 노투사(빨치산 출신)들과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 4만 7천 75명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 기념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힘.
  
- **北 ‘7·27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 개최(7/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4일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주년을 맞아 24일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외국인사들로 구성된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을 열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출정식에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과 해외 동포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연락위원장 겸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등이 참가했다고 전함.

● **북한 수해 사망자 28명으로 늘어(7/27,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적십자사연맹(ICRC)을 인용해 27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이 ICRC에 이달 23일 기준으로 폭우 인명피해가 사망자 28명, 실종자 18명, 부상자 2명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함.

● **北 김광민 감독 “다득점 못해 아쉽다”(7/27, 연합뉴스)**

-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김광민 감독이 다득점에 실패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선수권대회(이하 동아시아컵) 여자부 3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김.

● **北, 사이버 교육 확대…‘지식 수요 충족’ 선전(7/28, 연합뉴스; 금수강산)**

- 북한이 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면 사이버교육 확대를 선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인 ‘금수강산’ 7월호에서 ‘지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준다’라는 제목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김일남 학장의 인터뷰를 실어 전국의 기관과 기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교육 현황을 자세히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2013년 동아시아컵 축구선수권대회 여자부 2차전 北-日 경기, 7.25 진행 및 0:0 무승부(7.25,중통·중방)

## 2 대외 관계

- **파나마 대통령 “北선박서 미그21·미사일레이더 확인”(7/22,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미그 21 전투기 2대(1950년대 소련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2개가 실려 있었다고 21일(현지시간) 확인함.
  -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선박 안에는 전선과 전자 장비들도 있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한편, 하비에르 카라바요 파나마 검찰 총장은 “(북한 선박에 실려 있는 것이) 무기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폐기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함.
  
- **내전 중인 시리아, 北 김정은에 정전 60주년 축전(7/22, 조선중앙통신)**
  -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지난 21일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아사드 대통령은 축전에서 “조국해방전쟁(6·25전쟁) 60돌에 즈음하여 시리아 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 인민이 강성부흥을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며 “이 기회에 시리아와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힘.
  
- **파나마 억류 北선박 본격 하역작업 “유엔에 조사일임”(7/23, 연합뉴스)**
  - 무기를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 적발된 북한 선박에 대한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나마 당국은 조사를 사실상 유엔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조병립 주파나마 대사는 연합뉴스에 “유엔 조사단이 도착하면 최소한 2~3일가량 정밀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유엔에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평안북도서 미군유해 발견 주장(7/23, 미국의소리(VOA))**
  - 평안북도 구장군 룡연리에서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몇 구가 발견됐다고 북한군 장교들이 방북 취재 중인 미국의 소리(VOA)방송 기자에게 전했다고 VOA가 23일 보도함.
  
- **북한, 카터·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초청(7/23, 교도통신)**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 평양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북 여부를 놓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 협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은 카터 외에도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도 초청한 상태라고 밝힘.
  
- **파나마 적십자사, 청천강호 선원 접견(7/24, 연합뉴스)**
  - 파나마 적십자사가 23일(현지시간) 현재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물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로 들어오다 적발돼 구금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35명을 접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하이메 페르난데스 파나마 적십자사 총재는 “의사 3명 등 의료진들이 이들 선원을 만나 건강 문제 등을 파악했다”며 “이는 인도적인 임무”라고 밝힘.
  
- **中 리위안차오 부주석 北 ‘전승절’ 행사 참석(7/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초청에 따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며 국가부주석인 리위안차오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전승절’ 60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함.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도 이날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리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25~28일 북한을 방문, ‘조선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고 발표함.
  
- **북한, 중국 미술시장 공략에 현지 공관 가세(7/24, 중국신문망)**
  - 24일 중국신문망은 주선양(瀋陽) 북한총영사관은 23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에서 시 정부와 공동으로 북한 회화전람회를 개최했

으며, 15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양국 정부 당국이 공동 개최한 첫 북한 미술품 전시회라고 소개함.

- **유엔, 북한 요청으로 수해 지원 실사단 파견(7/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 따라 평양 주재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직원 등으로 구성된 ‘유엔 실사팀’을 이달 23~24일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에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유엔이 RFA에 공개한 북한 수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4명, 부상자 2명, 실종자 14명 등 모두 40명이며, 특히 평안북도는 사망자 7명, 부상자 2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됨.
  
- **美 AP통신사 부사장, 정전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7/24, 조선중앙통신)**
  - 존 다니제브스키 미국 AP통신 부사장이 24일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美 민간단체, 북한 수해 복구 지원(7/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황해남북도 지역에서 수재민들에게 식량, 정수기,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등 북한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中 리위안차오 부주석 방북…“북중, 피로 맺은 관계”(7/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겸 공산당 정치국원은 2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중국) 대표단이 조선전쟁(6·25전쟁) 승리 6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조(북)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태국서 탈북자 25명 체포돼(7/26, 자유아시아방송(RFA))**
  - 태국 경찰이 최근 2차례에 걸쳐 탈북자 25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北 김영남, 내달 4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7/26,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다음달 4일 열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中리위안차오, 北김정은 만나 “한반도 비핵화” 강조(7/26, 신화통신)**
  -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와 안정 유지 방침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함.
  - 리 부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이 북한과 함께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에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외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함.
  
- **北 김정은, 中 시진핑 구두 친서 전달받아(7/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행사 참석차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리 부주석이 김 제1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따뜻한 인사와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했으나 구두 친서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함.

● **北, ‘전승절’ 60주년 계기로 외교활동 분주(7/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북한 내부에서 외교활동이 분주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당 대표단은 방북 중인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과 회담을 하고 두 당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 북한 측에서 김영일 당 국제 담당 비서가, 베트남 측에서 쩌 꾸억 부영 당비서 겸 판공실 주임이 참석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쿠바 라울 카스트로에게 축전(7/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6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몬카다 병영 습격’ 60주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몬카다 병영 습격 60돌을 맞으며 쿠바 공산당과 쿠바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우리 두 나라 인민의 혁명적 의지가 과시되는 7월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의 유대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힘.

● **北 미술품 창작·판매기구 중국서 성업중(7/27, 신화망; 중국신문망)**

-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에 설립한 ‘북한화가 중국창작기지’(이하 창작기지)가 성업중이라고 신화망과 중국신문망이 27일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국대표단(단장 : 中 당중앙위 정치국위원이며 부주석인 ‘리원조’),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와 내각의 초청에 따라 ‘전승’ 60돌 경축행사 참가차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7.24,중통·중방)

- 北, '정미7조약은 日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합리화 될 수 없는 간악한 범죄행위'라고 비난(7.24, 평방)
- 美 해군의 '무인기 X-47B' 이착륙시험을 '亞-太지역 정세악화와 군비경쟁 시한탄, 국제정세 예측 불가 상황' 등 "위험천만한 범죄적 망동"이라고 주장(7.25, 중통·노동신문·중방)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南의 정전협정 기념행사는 전쟁범죄 미화 광대극”(7/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패배자의 수치를 가리고 저들의 용납 못할 복침 전쟁범죄 행위를 미화하기 위한 광대극”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기념행사니 뭐니 하며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미제와 함께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범죄적인 동족대결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함.
- 北 “남북대화, 당국 차원 넘어 확대해야”(7/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북남공동선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 시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한 것은 대화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는 당국 뿐 아니라 북과 남의 각계각층의 왕래와 접촉, 대화와 협력이 적극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서는 북남관계 개선과 관련한 진실한 마음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나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며 남한 당국이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에도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고 주장함.
- 北, 민족단합 강조…“반목·대결 끝장내야”(7/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위력한 무기’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자고 해도 그렇고 부강변영을 이룩하자고 해도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는 것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길이며 그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단합과 연대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며 “통일애국역량의 강력한 단결을 통해 북남 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개성공단 회담 또 합의 못해...25일 6차 회담 개최(7/2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남북한은 22일 개성공단에서 제5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문 없이 또다시 회담을 종료했으며 이달 25일 6차 실무회담을 열어 재발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가장 크고 우리 측은 재발방지 보장을 위해 북측의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측이) 국제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함.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제5차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 2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됐다”며 “쌍방은 합의서 내용을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일부 문제는 다음 회담에서 토의하기로 했다”고 관련사항을 짚막하게 보도함.

### ● 남북 개성공단 회담 끝내 결렬...공단 장기폐쇄 우려(7/25, 연합뉴스)

-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 양측은 25일 개성공단에서 6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고 추가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채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끝내 결렬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재발방지와 관련해 북측이 새롭게 제시한 문안으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으므로 오늘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의했다”고 밝혔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회담 결렬’이라면서 “남측이 입장을 철회하고 남과 북이 공동담보를 할 경우에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자청,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이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남측과의 개성공업지구협력사업이 파탄나게 된다면 공업지구 군사분계선지역을 우리 군대가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서해 육로도 영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개성공단 회담 南태도 비난…“회담 파탄위기”(7/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남측은 공업지구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해 나섰다”며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회담을 일찌감치 건너치우고 다음번에 보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렸다”고 비난함.
- 통신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부정적 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이번 회담에서 재발방지와 관련, “공업지구 중단사태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끝이 없다”며 “북과 남이 공동으로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테 대해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진지하게 제기했다”고 전함.

● **남북 적십자사, 동아시아 적십자회의 동시 참석(7/26, 연합뉴스)**

- 남북 적십자사 대표단이 오는 29~30일 홍콩에서 열리는 ‘적십자 동아시아 지도자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이 회의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 5개국 적십자사의 지도자들이 모여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올해는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

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 준비 상황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하며 남측에서는 고정석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김주자 국제협력팀장이, 북측에서는 백용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정부, 최후통첩…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北에 제의(종합2보)(7/28, 연합뉴스)**

-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29일 제안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미국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60기 및 관련 장비 구매 요청(4억5,200만 달러) 관련 ‘北을 언제든지 선제타격 할 야망밑에 필요한 공격무기들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7.22, 중통)
- 한국전 ‘잊혀진 승리’ 발언들 관련 ‘南 집권세력이 아무리 잊혀진 승리나발을 불어대도 역사의 진실을 결코 가리울 수 없다’며 ‘참패의 수치를 잊어보려는 가련한 발광’이라고 비난(7.23, 평방)
- 北, ‘남북공동선언은 자주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염원을 반영하고 지난 시기의 남북합의들을 총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지침’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7.24, 중통·중방·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의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미국인 선정(한미동맹에 기여한 주요 인사나 참전용사) 포상(‘백선엽 한미동맹 상’) 관련, “하인이 상전에게 상을 준다”며, “폰수 없는 어릿광대 놀음”이라고 조소(7.24, 평방)
- 「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7.25), 南 공안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등 구속은 ‘반인륜·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보안법 철폐, 통일운동단체 인사들 석방투쟁 전개’ 선동(7.25, 평방·중통)

7.29-7.31

7월

5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인민보안부장서 해임된 北 주상성, TV에 등장 눈길(7/2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지난 2011년 3월 전격 해임된 주상성 전 북한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이 2년 4개월 만에 북한TV에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오후 8시 보도에서 '7·27'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에 올라온 전쟁 노병 대표들이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았다며 관련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 영상에서 주상성의 모습이 포착됨.
- **北 김정은, 6·25 중공군 전사자 묘지 참배(7/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이틀 뒤인 29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과 '성흥혁명사적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제1위원장은 "중국 당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직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준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모범"이라며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역사를 잘 알고 귀중히 여기며 길이 빛내나갈 수 있도록 사적지에 대한 참관과 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조직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전승절' 참가 노병·해외동포와 기념사진(7/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기념행사에 참가한 6·25전쟁 참전 노병, 해외동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이 촬영장에 나타나자 노병 대표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으며 사진 촬영이 끝나고 김 제1위원장은 노병들이 건장을 지켜 '1950년대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혁명 위업'을 계승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함.

■ **김정은동향**

- 7/30, 김정은 黨 제1비서, 7.29 평남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찾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모택동 아들 모안영 등) 추모(7.30,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원홍, 김양건, 최부일, 리영길, 김경옥, 김영철,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김계관 동행
- 7/30, 김정은 黨 제1비서, 7.29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가 위치한 '성흥혁명사적지' 방문(7.30,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장정남, 김경희, 김원홍, 김양건, 최부일, 리영길, 김경옥, 김영철, 박정천,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김계관 동행
- 7/30,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절」 60돌 경축행사 참가한 전쟁노병 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7.30, 중방·중통)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최부일, 리병삼, 주규창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北-中 두 나라 노병들의 친선연환무대, 7.29 김영남·최영림(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김영일 등 참가下 인민극장에서 진행(7.29,중통)
- 김일성 父子 평안북도 현지도도 50돌 기념보고회, 7.30 리만건(평안북도黨 책임비서/기념보고) 참가下 진행(7.31,중방)

**나. 사회·문화**

- **北 ‘전승절’ 다음날도 경축 무도회·음악회 잇달아(7/29, 조선중앙통신)**
  -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는 29일 저녁 전승절을 경축하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당·정·군 인사들과 6·25전쟁 노병 대표들, 북한을 방문한 해외동포 및 외국 대표단 등이 관람하는 가운데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北 동아시안컵 우승 여자축구팀 ‘금의환향’(7/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우리의 미더운 여자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로 귀국했다”며 대회 일정을 마친 선수단의 귀환 소식을 신속히 전하고 선수단이 열렬한 환영 속에 비행장에 들어서려는 장면과 우승 소감을 밝히는 선수들, 북한의 우승에 감격스러워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도함.

● **北, 남녀평등법 공포 67주년 맞아 여성 역할 강조(7/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67주년을 맞아 ‘강성국가 건설에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높이 떨치자’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며 애국적 헌신성을 강조함.
- 신문은 특히 “여성들은 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반대배격하고 가장 문명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 식의 몸차림과 머리단장으로 거리와 마을들을 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피델카스트로 “‘쿠바무기’ 北선박 사건 조작되고 있다”(7/29, 연합뉴스)**

-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파나마 운하에서 북한 선박에 실린 쿠바 무기가 압수당한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카스트로는 쿠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해 언급하면서 적대국들이 북한 선박이 억류된 사건을 기화로 쿠바를 중상하려 획책한다고 지적함.

● **북한, 홍콩 기업에 금강산·평양공항 리모델링 맡겨(7/29,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홍콩 PLT설계건축회사의 도시계획자인 오토 청(鄭炳麟)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사가 제안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공항 재설계 안에 깊은 인상을 받은 덕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공항 재설계 의뢰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함.
- 청 씨는 “김 제1위원장이 우리 설계에 만족했지만 그는 수도(평양)의 공항이 경제특구의 공항보다 나빠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평양 공항의 업그레이드에 초청받은 이유”라고 말함.

- **방북 다이노키 의원,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7/29, NHK)**
  - 북한의 60주년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다고 NHK가 29일 북한 매체를 인용해 보도함.
  
- **중국 대북 수출액 4년 만에 감소(7/29, 교도통신)**
  - 중국 해관총서가 2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어든 15억 9천만 달러(약 1조 7천 700억 원)였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특히 대북 원유 수출액이 20.2% 감소한 2억6천만 달러를 기록, 주된 감소 요인으로 꼽혔으며 원유 수출량은 14.2% 줄어든 25만t으로 집계됨.
  
- **일본, 베트남에 납북 피해자 문제해결 지원 요청(7/29, 교도통신)**
  - 베트남을 방문 중인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이 29일 쯔 다이꾸앙 베트남公安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 정부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후루야 담당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 피랍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북 원조나 제재 해제를 제안할 의사가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에 대해 팡 장관은 북한 고위관리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코언 美차관 방한…“파나마 사건, 北 위협 입증”(7/29, 연합뉴스)**
  - 29일 밤늦게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한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파나마(에서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적발된) 사건은 재래식 무기와 확산에 있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코언 차관은 “방한 목적은 한미 양국 모두 직면한 중요한 안보 사안인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매우 이 사안들에 대해 협력해 왔고 내일도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서 북한 인권 전담단체 출범(7/30,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특화된 ‘북한 캠페인 영국’(North Korea Campaign UK)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6·25전쟁 정전 60주년인 지난 27일 영국 런던에서 출범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영국 의회 소속인 잭 헨즈 연구원을 비롯한 20~30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축이 됐으며, 단체의 성격에 대해 헨즈 연구원은 국제인권 단체들의 역량이 중동 국가 등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달리 ‘북한 캠페인 영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RFA에 밝힘.
  
- **중국, 압록강서 홍수로 고립된 북한 섬주민 구조(7/30, 광명망(光明網))**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 린장(江)시의 국경수비대가 최근 폭우로 섬에 고립된 북한 주민 3명을 구조했다고 중국 광명망(光明網)이 30일 전함.
  
- **‘대북 저승사자’ 코언 미차관 “김정은 자금이 관심”(7/30, 연합뉴스)**
  - 방한중인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30일 “김씨 일가의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소위 통치자금에 관심을 두고 추적 중에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코언 차관은 “어디에 (김씨 일가의 자금이) 있는지 관심이 있지만, 행동을 취할지 취하지 않을지 여부와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일단 찾아낼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 **주북 中대사 “피로맺은 북중친선, 대 이어 계승”(7/30, 조선중앙TV)**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29일 평양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기념 양국 노병들의 친선연환 모임에서 “피로써 맺어진 귀중한 조중(북중)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영원한 공동의 재부”라며 전통적인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계승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함.

- 류 대사는 또한 “우리는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며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강화하면서 호혜 공영의 원칙에 따라 두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美 여행사, 北 만수대창작사 탐방 상품 판매(7/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뉴저지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여행사가 지난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만수대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 백두산건축대학 등을 방문해 작가 및 대학생을 만날 수 있는 여행 참가자 15명을 이달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국내 조사활동 시작(7/31, 연합뉴스)**

-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31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실무자 2명이 29일 입국해 어제부터 우리 단체 사무실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함.
- 이들 조사관은 내달 7일까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8일부터는 국내의 다른 북한인권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이어가게 되며 이들 조사위원들은 ▲식량권 위반 ▲정치범수용소 관련 위반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의 자유 유린 ▲생존권에 대한 위반 ▲이동의 자유 침해 ▲납북자 등 강제실종 관련 위반 등 북한 당국이 자행한 9가지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노동당←쿠바공산당 대표단 사이의 회담, 7.29 김영일(黨비서) 등 참가下 진행(7.29,중통·중방)
- 日 방위성의 이지스함 2척 추가(총 8척) 구입 검토 등 ‘미사일방위능력 강화’ 관련 ‘日 자위대를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고 해외침략군으로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7.30,평방)

## 나. 6자회담(북핵)

### ● 뉴질랜드 키 총리 “북한 핵무기 포기해야”(7/29, 연합뉴스)

-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29일 주한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확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3 대남 동향

### ● 北 “8월 한미군사훈련 하면 한반도 또 전쟁국면”(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미국의 패권야망을 분쇄해버려야 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 달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또다시 벌어지고 여기에 유엔군 사령부가 개입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위협함.
- 신문은 지난봄 한반도 긴장상태가 최대로 격화된 데는 유엔군 사령부라는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며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절대로 완화할 수 없고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北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북침야망 실현 기도” 비난(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자주권 실현을 외면하는 비굴한 처사’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있지도 않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전작권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환심을 얻어 국제적인 반공화국 압박공세를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세계적으로 군대의 지휘권과 같은 초보적인 주권마저 외세의 수중에 내맡기고 그것을 돌려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남조선 당국자들뿐”이라고 비난함.

기타 (대남)

- [南北민족종교단체들 공동호소문] 가쓰라-태프트 밀약 108돌 관련 '남북이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방안 모색, 일본의 간교한 만행과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것'이라며 美日 비난 및 '평화통일 성취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7.29,중통·평방)
- 우리 당국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등 구속(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反통일 망동'이라고 비난(7.30,중통·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연기 계획(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논의 등)에 대해 "친미사대 매국행위의 극치, 북침야망 실현 기도"라고 지속 비난 공세(7.31,중통·노동신문·평방)
- 내달 '한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時 "유엔군사령부 개입" 등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유지 등 대외정책' 비난(7.31,중방·노동신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01-8.04

8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동아시안컵 우승 여자축구팀 만나 격려(8/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여자 축구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여자 축구선수들이) 전승절에 우승함으로써 승리의 7:27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었다”고 밝힘.
  
- **北 “전승절 행사 성공” 자평…강성국가 건설 독려(8/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낸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국가 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며 모든 전선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전승절 이후 매진해야 할 과제로 ▲전 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化)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선군정치 노선의 주력인 인민군과 국방력 강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마식령 속도’ 창조 ▲당 간부와 조직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함.
  
- **北 김정은, 열병식 참가 전쟁노병들과 기념사진(8/3,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던 전쟁노병·지휘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환호하는 전쟁노병·지휘관들에게 ‘따뜻한 인사’로 답례하면서 “선군조선의 기상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쟁노병들, 지휘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사진 촬영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문경덕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이 함께함.

● **北김정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8/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공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문경덕 노동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함께함.

**김정은동향**

- 8/1, 김정은 黨 제1비서, 4.25팀과 햇불팀의 남자축구경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양궁경기 관람(8.1,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강석주, 리영수, 리영길,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김영훈, 마원춘, 김영철, 오금철, 리종무(체육상), 리주봉(체육성 黨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동행 관람
- 8/1, 김정은 黨 제1비서, 2013년 동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대회 참가(1위) 선수들 접견 및 선물 전달(8.1,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등, 남자축구경기 등 관람時 수행 간부 同一 배석
- 8/3,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절』 60돌 경축 열병식 참가 전쟁노병들 지위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8.3,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리영길, 문경덕, 오일정 참가
- 8/3, 김정은 黨 제1비서, 8.3 故 정몽헌(前 현대그룹 회장) 사망(‘03.8.4) 10년 관련 원동연(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촉 부위원장) 통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8.3, 訪北)에게 “추모 구두친서” 전달(8.4, 중통·중·평방)
  - 정몽헌 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성업을 위해 큰일을 하였으며,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람.
  - 정몽헌 사망 10년 추모식, 8.3 금강산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및 관계자와 北 원동연·황호영(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국장) 등 참가下 진행(8.4,중통·중·평방)
- 8/4,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전승” 60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관람(8.4,중통·중·평방)
  - 최룡해, 김격식, 장정남, 리영길, 문경덕, 오일정, 김경옥, 김영철 등 동행 관람

## 나. 경제

### ● 北, 나노기술 발전에 박차…‘나노기술센터’ 건립(8/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나노기술발전의 밝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제10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나노기술중심을 새로 나오도록 하시고 나노기술부문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보급일반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다”고 밝히고 기초공업, 환경, 의학, 에너지, 경공업, 농업 분야에서 나노기술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농업용 나노살균제와 나노생물성장촉진제, 나노실내공기정화기 등의 제품을 소개함.

### ● 北 대규모 축산단지 ‘세포등판’ 개간 마무리 단계(8/4,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지난해 말 강원도 일대에 조성하기 시작한 대규모 축산단지 ‘세포등판’ 개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 2일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공화국 창건 65돌을 세포등판 건설 성과로 빛내일 신심에 넘쳐 총공세를 벌여나가고 있다”고 전함.
- 이로 미뤄 북한이 정권 수립 65주년인 내달 9일까지 세포·평양·이천군에 걸친 평평한 황무지 세포등판에 목초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임.

## 다. 군사

### ● 北군수담당 비서 박도춘 3개월째 ‘잠적’…배경 관심(8/4, 연합뉴스)

- 북한 군수공업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3개월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박도춘은 지난 5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과 함께 보건부 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한 이후 현재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

활동이 보도되지 않았으며 ‘전승’(정전협정체결·7월 27일) 60주년 기념행사에도 불참함.

● **북한군, 하계훈련 최소화 호우피해 복구 명령(8/4, 연합뉴스)**

- 7월 중순 이후 북한 내륙지방에 집중된 호우 피해가 북한군의 하계 군사 훈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최근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의 부대에 하계훈련을 최소화하고 대민 피해복구에 집중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상당수 부대가 훈련을 중지하고 피해 복구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국제축구학교, 유럽 감독 초빙…축구선진화 박차(8/1, 연합뉴스; 조국)**

- 평양국제축구학교의 현철운(53) 교장은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7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축구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현재 독일과 스페인의 우수한 축구감독들이 학교에 초빙된 상태”라고 밝힘.

● **北, 수해 복구 본격화…대책기구 설치(8/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북한에서 수해대책기구인 ‘중앙큰물피해방지 연합지휘부’가 설치됐으며 그 산하에는 도, 시, 군별 연합지휘부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함.
- 신문은 내각과 산하 부처인 성(省), 중앙기관들에는 ‘큰물피해방지 상무분과’가 조직됐으며 이들 조직의 책임자로는 내각의 각 상(相·장관)들과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임명돼 대책기구는 통보 체계를 갖추고 수해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유엔 “북한 폭우로 33명 사망”(8/3, 미국의 소리(VOA))**

- 유엔은 최근 북한에서 집중호우로 33명이 숨지고 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지난달 24일 현재 북한 내 홍수 발생지역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국제적십자 “北 홍수로 식량안보 장기적 악영향 예상”(8/1, 연합뉴스)
  - 최근 북한지역에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해 북한의 식량안보에 장기적인 차원의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1일 IFRC가 최근 발행한 북한 홍수 피해 소식지(Information bulletin)에 따르면 연이은 폭우로 지난달 12~22일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농경지 1만3천340ha(133.4km<sup>2</sup>)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되는 등 피해를 보는 등 홍수가 식량안보와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장기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北주도 국제태권도연맹, 2015년 세계대회 평양 개최(8/1,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함.
  - ITF 오스트리아사무국은 지난달 17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ITF 제23차 총회에 참석한 71개 나라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제19차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평양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 북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서명…비준은 아직 안해(8/1,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일 유엔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함.

- 국제적십자 “北 수해 지원 특별예산 32만달러 책정”(8/2,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32만 달러(약 3억6천만원)의 특별예산을 책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일 전함.
  - IFRC는 수해를 입은 5천 가구의 주민 2만 명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긴급기금’에서 30만 스위스프랑(약 32만 달러)을 배정했으며 홍수 피해가 가장 큰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수재민 5천 가구를 대상으로 12만 달러분의 임시거처 제공사업, 4만700달러 예산의 식수 제공 및 위생사업을 진행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취사도구와 필수품을 제공할 계획임.
  
- 中, 북중 국경 두만강 하류까지 철조망 설치(8/2, 자유아시아방송(RFA); 아시아프레스)
  - 중국이 북-중 국경 두만강의 하류지역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2일 밝힘.
  
- 北매체 “中, 北주민 구조는 친선의 증거” 선전(8/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3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吉林)성 린장(江)시의 변방 대대가 지난달 25일 사경에 처했던 북한 자강도 중강군 상장협동농장 농장원 3명을 구조한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중국 국경수비대의 헌신에 찬사를 쏟아냄.
  - 중앙통신은 “중국 국경수비대 구조원들은 세찬 물결과 바람으로 섬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여러 시간 악전고투해 섬에 있는 농장원들을 찾아냈다”며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장원들을 구원했다”라고 묘사함.
  - 중앙방송은 특히 이번 구조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에 즈음해 “조·중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친선의 열의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함.

● 북-러 수산대표단 양식장 교차 방문(8/3,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의 어업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 대표단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수산청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러시아 수산청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영 수산업체 ‘프리모리보드’사(社)의 수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달 방북해 강원도 원산시의 연어 부화장, 함경남도 북청군의 송어 양식장, 평양 메기공장 등을 둘러봤다고 밝힘.

● 北, 美 공대공 미사일 南 판매 움직임 비난(8/4, 노동신문)

- 북한은 4일 미국이 남한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를 추진하는 데 대해 남한의 북침 야망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 움직임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남조선 호전광들을 반공화국 대결로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함.

● 北 김영남, 이란서 로하니 대통령 만나(8/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신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로하니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사를 전했으며, 로하니 대통령은 30년 전 김일성 주석을 만난 사실을 회고하고 양국의 친선관계가 확대발전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 김영남(8.4,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8.1 평양 출발), 8.3 이란 수도 테헤란 도착(8.3,중통·중·평방)
- 黨 및 정부대표단(단장 : 김기남 비서)도 8.2 적도기니 수도 말라보 도착(8.3,중통·중방)

## 나. 6자회담(북핵)

### ● 북핵 6자회담 일본대표 4일 방중(8/2, 교도통신)

- 북핵 6자회담의 일본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과 북핵문제를 논의한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함.
- 이하라 대표는 오는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6자회담의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다른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 3 대남 동향

### ● 北 “정몽헌은 애국인사”…10주기 맞아 추모(8/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방북한 정 전 회장을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인사”로 평가하며 추모함.
- 신문은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절세위인의 동포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 전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연을 소개하며 그가 “정주영 명예회장과 함께 북남경제협력의 새 장을 펼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함.
- 또한 정 전 회장이 ‘애국적 기업가’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김 국방위원장의 ‘은정’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남북을 잇는 ‘무지개 다리’로 만들기 위해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함.

### ● 개성공단 폐쇄 위기속 김정은 구두친서(종합)(8/3, 연합뉴스)

- 개성공단 완전폐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했다가 오후에 돌아온 현 회장은 “추모식에 참석한 북측의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

회 부위원장으로 부터 정몽헌 전 회장을 추모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힘.

- 또한 “사업과 관련한 북측의 언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추모사를 전달 하기 위해 온 것이어서 사업이야기는 없었다”면서 “개성공단 문제, 금강 산 관광재개에 대해서도 북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함.

● **北매체, ‘김정은 구두친서’ 보도(8/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 서를 보낸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4일 새벽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3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0주기를 맞아 정 전 회장을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함.

● **정부 “인내심 한계”…개성공단 ‘중대조치’ 고비(종합2보)(8/4, 연합뉴스)**

- 정부는 4일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일주일째 계속되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우리측 회담 제의 수용을 압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힘.

8.05-8.11

8 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주민과 스킨십 행보(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과 전쟁 노병들을 챙긴 주민, 황해남도 관개수로 건설과 ‘전승기념관’ 건설을 성의껏 지원한 주민, 식량을 ‘애국미’로 헌납한 주민 등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리모델링 중인 평양체육관 시찰(8/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체육관의 리모델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90%까지 진행됐다는 보고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특히 경기장 홀과 관람석을 보고 “개건보수(리모델링)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물놀이장·승마장 건설장 방문(8/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클럽) 공사장을 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68주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은 현재 마감 공사 중인 문수물놀이장이 야외·실내 물놀이장과 배구·농구·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들로 이뤄진다고 “특색 있으면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이라고 소개함.
  - 공사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당 창건 기념일까지 문수물놀이장을 세계적인 물놀이장으로 훌륭히 완공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휴대전화 공장서 “사용자 편의 도모해야”(8/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5월11일 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 내 조립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며 특히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리랑’ 손전화기(휴대전화)의 성능과 포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함.
  - 김 제1위원장은 “아리랑 손전화기가 보기도 좋고 가벼우며 통화와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기능이 설치돼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보안성이 철저히 담보된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 식으로 개발한 데 대해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정은동향

- 8/6, 김정은 黨 제1비서, ‘장태영’(대성지도국 부원) 등 조선혁명박물관 조성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8.6, 중방)
- 8/7,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에 이른 과학자살림집(평균 85%) 건설장과 새로 개건 중인 평양체육관(73.4 준공) 시찰(8.7,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황병서, 마원춘 동행
- 8/9, 김정은 黨 제1비서, 공훈국가합창단·조선인민군협주단 일꾼 등에 ‘감사’ 전달(8.9, 중방)
- 8/9, 김정은 黨 제1비서, 미림송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건설장 시찰(8.9, 중통·중·평방)
  -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김수길 등 수행
- 8/11,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1일공장(전자제품들 생산공장) 현지지도(8.11, 중통)
  - 리재일, 김병호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마식령스키장건설정형 현지에서 요해(8.10, 중통·중방)

## 나. 경제

- **北 쌀값 3개월째 안정세…“2호미 배급 때문”(8/6, 데일리 NK)**
  - 6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한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6월 말과 비교해 1kg당 각각 400원, 150원, 100원 정도 소폭 오른 5천 400원, 5천 500원, 5천 60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데일리NK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물가가 8월 초 현재 약간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국의 ‘2호미’ 배급과 중국과 쌀 거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北, 청년층의 생산현장 집단진출 장려(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우리 청년들은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투장에 달려나가 시대의 영웅으로 자랑 떨치고 있다”며 열악한 조건의 생산 현장에 자원진출한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얼마전 함경남도 김형권신포사범대학의 졸업생 35명은 열악하기로 소문난 량강도·자강도 일대의 북부철길 개보수 공사장으로 집단진출함.

● 北 평양에 비타민C 공장 완공(8/9,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시에 비타민C 공장이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평양의 대동강 기슭에 비타민C 공장이 새로 건설돼 준공됐다”며 준공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공장의 구체적인 규모나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 당비서, 박순철 조선대양총회사 총사장 등이 참석함.

다. 사회·문화

● 北에서도 ‘세계모유수유주간’ 행사 개최(8/5, 조선중앙통신)

-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첫째주)을 맞아 5일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유아를 키우는 여성들과 내각 보건성과 지역 관계자들, 북한 주재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北 ‘사철국화’ 유전자전이생물 1호 등록(8/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화초연구소가 유전자 변형기술로 육종한 ‘사철국화’가 ‘유전자전이생물’ 제1호로 등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北 황남지역도 기습폭우…연안군 시간당 58mm(8/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6일 “황해남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내렸다”며 연안군에서 오전 9시 25분부터 1시간 동안 58mm의 강한 소나기가 퍼붓는 등 오전 7~11시에 해주시, 신흥군, 청단군, 배천군 등에서 폭우가 쏟아졌다고 보도함.
  
- **무더위에 北도 물놀이장·해수욕장 북적(8/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삼복철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평양) 능라물놀이장은 각계층 근로자와 청소년학생들이 매일 3천~4천 명, 최고 5천 명까지 찾아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함.
  
- **北 나노기술 투자확대…“전문연구원 수백명”(8/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에서 나노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국가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나노기술 인재 양성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과 함께 나노기술 개발과 응용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늘리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4월 ‘국가나노기술중심’을 설립하는 등 나노기술 연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관련 규격과 심의체계도 세웠고 전문 연구원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면서 나노기술 관련 학위·학직(교수 및 부교수) 소유자들도 수백명에 달한다고 보도함.
  
- **北 “미신 배격해 제국주의 사상침투 막아야”(8/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독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북한 내부에 ‘미신’을 퍼뜨려 주민들의 사상적 혼란과 사회 불안정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함.
  - 특히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반사회주의에 목적을 둔 미신단체들이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반역의 길로 부추기고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 했으며, 결국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했다면서 “미신이야말로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의 안내자”라고 거듭 강조함.

● 北, 자본주의 생활양식 연일 비난(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활짝 꽃피워’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적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부르주아 생활양식은 극단한(극단적) 개인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부화방탕한 생활만을 추구하게 하며 민족성을 여지없이 말살하는 반동적인 생활양식”이라고 주장함.

● 北,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주력…국제회의도 개최(8/9, 노동신문)

-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에서는 원격의료 시스템에 관한 세계 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기술협의회가 열린 것에 대해, 노동신문은 9일 “우리나라에서처럼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시스템)가 전국가적 범위에서 짧은 기간에 수립된 실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세계적으로 ‘Telemedicine’(원격의료)의 도입은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해당 나라 보건사업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회의 참가자들이 북한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 극찬했다고 전함.

● 北주민 무비자 입국 허용국 매년 조금씩 증가(8/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영국의 국제교류 관련 법률회사 헨리 앤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2010년 36개국, 2011년 37개국, 지난해 39개국, 올해 7월 현재 41개국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北, 세 번째 나선국제상품전시회 19일 개최(8/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세 번째 나선 국제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전시회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독일, 호주, 일본, 대만 등의 기업이 참가해 전기·전자제품, 차량용품, 경공업 제품, 의약품 등을 전시한다고 소개했으며 “전시회는 무역,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北, 아소 부총리 발언 비난…“재침략 선동”(8/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독일 나치 식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집권세력의 “공공연한 재침(再侵)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함.
  - 신문은 5일 ‘공공연한 재침 선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파쇼 독일을 본떠 일본도 헌법 개악과 군사대국화를 다그치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침략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그저 스쳐지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함.
- **북·중, 10월 단둥 종합박람회 준비 시동(8/5, 연합뉴스)**
  - 랴오닝성 단둥(丹東)시가 5일 시 무역촉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지난 3일 단둥에 도착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WFP, 북한 수재민 3만 8천명에 식량지원(8/6,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에서 수해가 심한 가정에 강냉이 지급을 시작했다며 배급은 30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함.
  - WFP의 식량 지원을 받는 북한 수재민은 3만8천67명이고, 이들은 1인당 매일 400g의 강냉이를 받으며 지원 지역은 평안남도 안주시, 평안북도 정주시·운산군, 황해북도 토산군, 연탄군, 함경남도 영광군 등 10개 군임.
- **北 “日 신방위대강 중간보고는 도발” 비난(8/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新) 방위대강’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대해 “지역정세 격화의 근원을 외면한 도발적 주장”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최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우리의 평화적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제반 조건과 분위기를 파괴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발로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 정책에 적극 편승하는 것으로써 저들의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식량 공공배급량 작년보다 증가(8/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북한 당국의 주민 1인당 하루 식량배급량은 1~5월 400g, 6~7월 390g으로 월평균 397g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383g보다 14g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6일 보도함.

● **北 김기남, 적도기니 대통령 면담(8/7, 조선중앙통신)**

- 적도기니를 방문 중인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지난 5일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을 면담하고 음바소고 대통령에게 ‘국제김정일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음바소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도기니와 조선(북한)은 오랜 친선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과거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면담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강조함.

● **북한 주민 81%가 식량부족(8/8,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지국은 최근 ‘대북지원사업 2013년 2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4~6월 북한 내 115가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93가구(81%)가 식량 부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특히 3가구 중 2가구가 지난 3개월간 친구나 친지에게 식량을 얻거나 가격이 저렴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답했으며 응답 가구의 14%는 식사량을 줄였고 3%는 하루 세끼의 식사에서 한끼 이상 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RFA는 덧붙였다.

● **상반기 美 대북수출 510만달러…대부분 무상지원(8/8,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6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규모는 약 510만 달러(약 57억 원)로 집계됐으며 교역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북 무상지원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함.
- 미 상무부 관계자는 RFA에 “6월에 육류 8만 달러 어치와 옷감 1만1천 달러 어치를 북한에 수출했다”며 “나머지 390여만 달러 어치는 주로 북한에 무상으로 기부된 식료품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이었다”고 밝힘.

● **北 작년 최소 20건 사형집행(8/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지난해 적어도 20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 ‘핸즈 오프 카인’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핸즈 오프 카인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최소 20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았고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2010년 60건, 2011년 30건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당국이 공식 사형 집행 건수를 밝히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함.

● **FAO “北, 올해 식량 부족분의 57%만 확보”(8/9,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57%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FAO는 지난 8일 분기별로 발표하는 ‘곡물 작황과 식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수정,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외부에서 확보한 곡물은 29만 600t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10월까지 북한에서 부족한 곡물 50만 7천t의 57%에 불과한 수치로 북한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FAO는 설명함.

● **北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해야”(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단결과 협조는 자주화된 새 사회건설의 기본 추동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현시기 발전

- 도상 나라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은 시대의 기본 흐름으로, 자주화된 새 세계를 창조하는 기본 추동력”이라고 역설함.
- 신문은 “발전도상 나라들이 국력을 강화하는 길은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길뿐”이라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약탈책동을 짓부수고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자면 개별적인 나라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 또한 “협조와 교류를 다각화, 다양화해야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폭넓고 심도있게 발전시킬 수 있고 전반적 국제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라며 “국제무대에서 발전도상 나라들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북·중, 단둥 종합박람회 10월 중순 개최(8/9, 단둥일보)**

- 북한과 중국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양국 종합박람회인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를 오는 10월10~14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단둥일보가 9일 전함.
- 일보에 따르면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 3일 단둥에 도착해 스광(石光) 단둥시장, 판상(潘爽) 부시장 등을 만나고 실무 회의와 현장 답사를 거쳐 이같이 합의함.

● **북한 억류 케네스 배, 병원 입원(8/10, 연합뉴스)**

-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가 최근 특별교화소(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10일(현지시간) 배씨의 가족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파나마 “北선박서 대전차용 로켓추진수류탄 발견”(8/11, 연합뉴스)**

- 파나마 당국은 억류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서 추가로 폭발물을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파나마의 하비에르 카르바요 마약담당 검사는 11일(현지시간) 조사관들이 선박에 실린 5개의 나무 상자 중 한 개에서 대전차용 로켓추진 수류탄을 발견했다고 말했으며 나머지 네 개 상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열어보지 않았다고 덧붙임.

● 北노동신문 “일본은 헌법 개악 말고 과거청산해야”(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헌법 개악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길로 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평화헌법이 ‘개악’될 경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실현을 위한 침략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일본은 헌법 개악, 군국화 높음을 걷어치우고 과거 죄악에 대해 반성,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함.
- 신문은 지난 5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관동군 세균부대인 ‘731부대’를 연상시키는 편명 ‘731’의 자위대 훈련기에 탑승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취임 초기에는 본색을 숨기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척했지만 그의 우익적인 태도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함.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일본 정부의 ‘新 방위대강’ 중간보고서 발표(7.26, 北 미사일 공격에 대응 능력 강화 등)에 대해 ‘지역정세 격화의 근원을 외면한 도발적 주장, 군사대국화 술책’이라며 한반도 정세완화 길은 ‘미국의 反北정책 철회와 駐日·韓 미군 철수’라고 주장(8.6, 중통)
- 미국의 ‘北 미사일위협 대처’ 일본·터키 등 세계 도처에 레이더 및 미사일방위 요소들 추가배치 관련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8.6, 중통·민주조선)

나. 6자회담(북핵)

● 北 우라늄공장 두배로 확장…핵무기 두개 제조가능(8/8, 연합뉴스)

- 미국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7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3월 우라늄 농축공장과 5메가와트(MW)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을 재정비·재가동한다고 밝힌 이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이 있는 건물의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ISIS는 “북한은 지난 2010년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8천kg-SWU(농축 서비스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론상으로 볼 때 북한은 이 같은 확장된 시설을 이용해 현재 4천개의 원심분리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만6천

kg-SWU(농축 서비스 단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함.

● **中, 핵실험 감시정보 국제사회와 공유…“北에 경고”(8/11, 연합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 북한 핵 문제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국이 자체 네트워크로 확보한 핵실험 감시 정보를 국제기구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보도함.
- SCMP는 장위린 중국 국방부 부부장(차관)은 최근 CTBTO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라지나 저보 CTBTO 사무총장과 만나 독자 확보한 핵실험 감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함.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개성공단 7차회담서 좋은 결실 기대”(8/8, 연합뉴스)**

- 북한이 8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 개성공단 7차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보낸 전통문에는 우리측 전통문을 접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들의)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는 표현이 포함됨.

● **北, 개성 7차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강조(8/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6·15 공동선언은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근본 전제”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막고 자주통일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 방도는 불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응해 나선다면 북남관계는 신뢰와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 등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며 제안 내용도 소개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북한TV, 개성공단 영상물 방영…정상화 의지 표시(8/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가 5일 오후 6시40분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선전하는 기록영화 시리즈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의 제10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시여’를 방영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영화는 김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을 꼽으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탄생 과정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비중있게 다루면서 개성공단이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 길이 열린 것은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통일을 위한 ‘대범한 조치’라고 선전함.

### ● 北 “南 대화의지 없어 회담 결렬위기”(8/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북과 남이 나아갈 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개성공단 회담의 결렬 위기인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며 남측 책임론을 지적함.
- 신문은 “남조선 집권세력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신뢰’를 운운하고 있지만 동족을 신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며 “동족을 불신하면서 외세와 야합해 우리를 어찌 보려 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엄중한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14일 7차회담 제안…재발방지 입장변화 없어(8/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7일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면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를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동을 보장하도록 한다”면서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 있는 입장 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고 밝힘.
  
- **北 “우리 아량·대범한 제안에 찬물끼얹는 말 삼가야”(종합)(8/9,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측의 ‘14일 개성공단 회담 개최 수용’ 통보에 회신문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9일 뒤늦게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측의 ‘7차회담 수용’ 전통문을 접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통문을 전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보냄.
  
- **北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 연일 강조(8/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북남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로부터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라며 “북남관계를 시대의 흐름과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함.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결렬위기’를 ‘남 당국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왜곡 및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 투쟁’ 강조(8.6, 중방·중통·노동신문)

-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8.7)]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7차 실무회담(8.14, 개성공업지구) 개최 제안(8.7, 중통·중방·평방)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민주주의와 새 정치를 지향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촛불집회 등 반정부 투쟁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중적 투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8.7, 평방)
- 우리 정부의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 관련 ‘6·25전쟁에서 미국과 저들이 승리한 듯 여론을 오도하고 수치스러운 참패를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기만극’이라고 비난(8.8, 평방)
-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거론 ‘국정원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모략과 음모의 본거지, 악의 소굴’이라고 비난하며 ‘국정원 해체’ 지속 주장(8.8, 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8.12-8.18

8 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유일사상 10대 원칙’ 첫 개정…세습·노동당 부각(8/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 역할을 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제목까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꿨으며 10조 65항으로 이뤄졌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올해 6월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음.
  - 김정은 시대 들어 김정일 위원장을 김 주석과 동급으로 격상한 북한은 이번에 개정된 원칙에서 ‘김일성’이라는 문구를 ‘김일성·김정일’로 바꾸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함.
- **北김정은, 김일성대 과학자아파트 공사현장 방문(8/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새집에 입주할 과학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과 TV 등을 마련해주라며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시킬 것을 지시함.
- **北 김정은, 평양시민과 남자 축구경기 관람(8/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시민들과 함께 ‘조국해방 68돌(광복절 68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룡악산팀과 보통강팀 간의 남자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5일 보도함.

● 北 “강성국가 건설에 매진하자”(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사설에서 “8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사회주의 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민족사적 경사의 날”이라며 “조국이 해방되고 번영해온 역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역사이며 우리 인민의 애국적 투쟁의 역사”라고 주장함.
- 신문은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세상을 세우던 건국의 나날처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주민을 독려함.

● 北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시찰(8/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제1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을 찾아 건설 상황을 보고받은 뒤 만족감을 표시하고 건설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스키장의 건설장의 호텔과 서비스 및 숙소건물, 스케이트장 등을 돌아봤고, 특히 스키주로(슬로프)가 보이는 곳에서 “무더기비(집중호우)가 내린 이번 장마철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함.
- 그는 “지난 5월 26일 건설장을 돌아볼 때와 비교해보면 마식령지구가 천지개벽됐다”며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마식령스키장 시찰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태성·황병서·김병호·마원춘 당 부부장, 전창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수행함.

● 북한, 조총련에 금수산태양궁전 유지비 모금 지시(8/18, 산케이(産經) 신문)

-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유지 기금을 모으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지시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이 18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체제, 규범·절차 강조…통치방식 변하나(8/18, 연합뉴스; 정치법률연구)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학술잡지 ‘정치법률연구’ 2013년 2호(6월 14일

-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2월 19일 ‘공화국 법제정법’을 새로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힘.
- 잡지에 관련 논문을 기고한 리경철 박사는 법제정법을 “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들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시기 법제정 사업을 개선하는 중요 방도”라고 강조함.

#### ■ 김정은동향

- 8/13,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방문(8.13,중통)
  - 최태복, 리재일, 박태성, 마원춘 동행
- 8/15, 김정은 黨 제1비서, 8.14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축구경기(용악산팀 對 보통강팀) 관람(8.15,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박범기,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조연준 등 관람

####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김정일의 양강도 현지도도 50돌 기념보고회, 8.14 김희택(양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도 진행(8.14,중방)
- “8월 15일은 우리(北)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사회주의 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민족사적 경사의 날”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黨의 영도 밑에 인민이 주인 된 나라”라고 강조(8.15,중통·평방·노동신문)

## 나. 경제

### ● 北 “경제강국 건설에 힘 집중하자”(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1면 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 공화국 창건(9월 9일) 65돌을 계기로 강성변영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뜻깊은 올해를 승리의 해로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호소함.
- 신문은 “우리에게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사상과 노선이 있으며 위대한 당의 세련된 영도가 있다”면서 “당정책 결사관철의 정신은 경제강국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진심으로 영도자를 받들고 자기 위업의 승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정책 결사관철의 정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함.

● 北 ‘9·9절’ 분위기 띄우기…초점은 ‘경제강국’(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총공격전에 더 큰 박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 창건 65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자량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에 더 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누구나 ‘공화국 창건 65돌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내세운 올해 전투 목표들을 앞당겨 결속하고 공화국 창건 65돌의 축전장에 땀땀이 들어서자”라고 독려함.

다. 사회문화

● 북한, 평남 평성시 관광 개방(8/14, 연합뉴스)

- 북한이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평안남도 평성시를 관광지역으로 개방했다고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가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여행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도시인 평성의 문이 열렸다”며 관광객들이 평성시 중심가, 6·25전쟁 시기인 1952년 김일성종합대학이 자리했던 백송혁명사적지, 고구려 시대인 서기 503년 창건됐지만 전쟁 시기 파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안국사, 김정숙고등중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고 전함.

● 北, 위락시설 즐기는 주민생활 집중 부각…왜(8/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5일 ‘현지취재반’을 인용해 “온 나라 방방곡곡에 펼쳐진 행복상의 일부를 능라인민유원지에서 전한다”며 15일 이 유원지를 찾은 평양시민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소개함.
- 방송은 능라유원지뿐 아니라 “(대동강 주변의) 인민야외빙상장과 류경원, 해당화관과 옥류관 등 봉사시설에서 문화 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기쁨의 노랫소리와 행복의 웃음소리가 대동강 기슭에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고 전함.

● 北신문 “올해 국제체육대회 금메달 50여개”(8/17, 노동신문)

- 북한이 올해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50여개의 금메달을 땀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밝힘.
- 노동신문은 1면에 게재한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고무추동하는 자랑찬 체육성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국제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수가 2.7배로 장성하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됐다”며 이같이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공화국 창건”(48.9.9) 65돌 기념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 남자축구경기, 8.15 김일성경기장에서 시작(8.15,중통·중방)

## 2 대외 관계

● 파나마 “北 선박 수색종료…미사일 발사장비도 발견”(8/12, 연합뉴스)

-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대한 수색을 11일(현지시간) 종료했으며, 파나마 공공안전부 호세 라울 물리노 장관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발견된 컨테이너에서 미사일발사에 필요한 장비를 발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北, ‘日 독도 여론조사’ 규탄(8/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데 대해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뿐 아니라 방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 독도를 어떻게 해서나 제 것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심은 끝이 없다”며 “용납 못할 영토 강탈 야망의 발로”라고 규탄함.

● 北역류 케네스 배 여동생 “오빠 몸무게 22kg 빠져”(8/12, CNN, AP통신)

- 케네스 배 여동생 테리 정씨는 11일(현지시간) 오빠 배씨의 몸무게가 22kg 이상이나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진 만큼

송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과 AP통신이 12일 보도함.

- **北역류 케네스 배 친선병원 입원…“美 정부 도와달라”(8/12, 조선신보)**
  - 건강이 악화돼 지난 5일부터 외국인 전용병원인 평양친선병원에 입원해 있는 케네스 배 씨가 “미국 공민으로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서 제가 공화국(북한)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함.
  - 배 씨는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가 와서 저를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를 하고 또 사면을 요청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힘.
  
- **中 “북한, 중국의 중요 방어막”(8/13, 환구시보(環球時報))**
  - 환구시보는 13일 자사 평론원 명의의 논평에서 “중조(북중) 우호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적 요소”라며 “조선(북한)은 지정학적 의미에서 중국의 중요한 방어막”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시대가 변했지만 지정학적 관성은 많은 변화를 초월한다”며 “오늘날 조선의 국가 안보는 여전히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사회주의권에서 전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하는 등 중국식 사회주의와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방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본조사단 18일 방한(8/13, 연합뉴스)**
  - 외교부가 13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위해 18~27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사단은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과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조사위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19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두루 만날 예정임.

- **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외교적 해결’ 제안(8/13, 마이애미해럴드)**
  - 쿠바 아바나의 북한 대사관은 지난 9일 파나마 정부에 보낸 구두 친서에서 ‘청천강호’ 사건을 외교적으로 풀기를 원한다면 파나마 당국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파나마가 ‘이 문제는 유엔 소관’이라며 북한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미국 마이애미해럴드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北, 잇단 일본 비난…“과거범죄 인정·청산해야”(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수치도 모르는 자들의 망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한 일본 당국의 반응에 대해 “후안무치한 언동”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일본이 앞으로도 성노예 범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비열하게 놀아댄다면 더 큰 국제적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본은 현실을 바로 보고 과거범죄를 성실하게 인정하고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캐나다, 북한 수해 지원 위해 3만 달러 기부(8/1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14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 캐나다가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6일 2만 9천 200 달러를 기부하는 계약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와 체결했다며 이 기부금은 IFRC가 올해 북한 수해 복구 특별지원 기금으로 책정한 32만 달러 총당에 사용된다고 전함.
  
- **北, 미국의 쿠바 제재 비난(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쿠바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쿠바 혁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 나라를 고립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에 대해 “쿠바를 질식시키려고 국제무대에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압력조치들을 수없이 조작발동하였으며 군사적 위협 공갈도 서슴없이 강행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오늘의 현실은 집요하고도 끈질긴 미국의 반쿠바 봉쇄정책이 이미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쿠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광복절 맞아 일본에 “과거죄악 청산” 촉구(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14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일본은 자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패망)70년을 넘기기전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 어지러운 과거의 죄악을 깨끗이 결산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진정한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환영”(8/15,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로 합의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반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라며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고 다시는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가동이 다른 건설적인 조치로 이어지면서 남북한의 신뢰가 구축되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김정은-푸틴, 광복절 맞아 축전 주고받아(8/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5일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역사적인 항일 대전의 피어린 나날에 마련된 조로(북러) 친선의 전통을 부단히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응당한 기여가 된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나는 정치 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확대하는 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 北 “일본은 과거청산 의무 이행하라”(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일제의 과거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란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라며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함.
- 신문은 “인륜 도덕상으로는 물론 국제법적으로 봐도 패전국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성실히 사죄하고 과거청산을 하는 것은 응당하다”며 일제의 죄악은 대를 두고 반드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힘.

● 北 “한반도 평화체제 좌절은 미국 태도 때문”(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평화는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힘.
-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미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국내 특별여론조사 결과 발표(독도영유권 주장)는 ‘사회여론 오도 및 국민들 속에 독도강탈 선동’으로 “파렴치한 독도강탈 야망의 발로”라고 재비난(8.12,중통)
- 미국이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서 정부 및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내정간섭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반제자주적 나라들의 힘 강화 및 내정간섭 배격’ 선동(8.13,중통·노동신문)
-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8.15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축전
-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委」 대변인, 8.14 「광복」 68주년 계기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 강점 시기 반인륜적 범죄 책임회피 및 군국주의 우경화’ 비난과 ‘과거청산’ 촉구 담화 발표(8.14,중통·평방)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남이 선의에 호응했으면 남북관계 좋아졌을 것”(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북남관계 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우리는 정세가 침예한 속에서도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았다”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아량 있고 선의적인 조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왔더라면 북남관계는 이미 새로운 장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한 것은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적으로 활발하게 벌이는 것”이라며 “당국 대화와 함께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민간 교류에 대한 의지를 밝힘.
  
- 北 “민족끼리 힘 합치자”(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조국통일의 전제”라며 “지금은 대립을 격화시킬 때가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때”라고 밝힘.
  -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에서는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많은 중대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남관계 개선은 명실공히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북과 남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미루는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단합과 통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대결의 남북관계, 협력관계로 전환해야”(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신심 드높이 6·15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글에서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자면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대결정책으로는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대결의 북남관계는 시급히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제시함.

## 나. 경제사회문화

### ●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5개항 합의서 채택(8/14, 연합뉴스)

- 남북은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는 명시함.
- 남북은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며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됨.

### ● 北청소년 광주 UN행사 명단 통보…내주 참석 가능성(8/16, 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다음주부터 광주에서 개최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참석할 청소년 3명, 인솔자 1명 등 4명의 명단을 지난 16일 UNOSDP에 통보했다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회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북한 청소년들의 명단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北, 스포츠 교류도 적극적…남북 해빙무드 ‘떡우기’(8/16, 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이달 22일 광주에서 개최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청소년 3명과 인솔자 1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들의 명단을 UNOSDP에 통보했으며 통일부는 UNOSDP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의 입국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정부, ‘이산상봉 적십자접촉 23일 판문점 개최’ 제안(종합)(8/16, 연합뉴스)**
  - 정부는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23일 판문점 내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16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전·KT “개성공단 전력공급·통신망 별 문제없어”(종합)(8/17, 연합뉴스)**
  -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전력과 KT 점검팀은 “공단이 재가동되면 전기를 공급하고 내부통신망을 재개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전 점검팀 관계자는 “지금은 배전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데 정부의 공단 정상화 추진 일정에 맞춰 송전방식으로 바뀌 전기를 송전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이산가족 실무접촉 수용…금강산관광 회담도 제안(종합2보)(8/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이틀 만에 수용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북남 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해 실무회담 기간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라고 제안함.

● 정부, 이산상봉 회담장소 금강산 대신 ‘판문점’ 요구(2보)(8/18, 연합뉴스)

- 정부는 18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22일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내부 검토 후 정부 입장을 추후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또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북한이 수용한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회담 장소를 ‘금강산’ 대신 당초 우리가 제안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거듭 제의함.

기타 (대남)

-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北의 입장’이라며 ‘6.15·10.4선언 실천의 現 남북관계 개선’ 지속 강조(8.12,중통·노동신문)
- 남한 국정원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 위업을 해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국정원 해체’ 선동(8.12,평방·노동신문)
-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 민족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온 겨레는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8.13,중통·노동신문)
- 개성공단 ‘제7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 8.14 진행 및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및 정상운영 보장’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5개항)” 채택 신속 보도(8.14,중통·중방·평방)
- “북남관계 개선은 조국통일의 전제”라고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6.15·10.4선언 실천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 주장(8.14,중통·노동신문·중방)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체 ‘광복’ 68주년 기념 호소문(8.15)]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신뢰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동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대단합” 강조(8.15,중통·평방)
- 北,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으로 온 겨레에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다’며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화해·협력, 평화번영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8.15,중통)
- 北 ‘조평통’ 대변인, 8.18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8.23, 금강산)’ 및 금강산관광재개 ‘남북 당국 실무회담(8.22, 금강산)’ 개최 제안 등 담화 발표(8.18,중통·중·평방)
  - ①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여 10.4 선언 발표 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함.  
이를 위해 북남 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함.
  - ②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함.  
실무회담 날짜는 22일로 하며, 회담 장소는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안함.
  - ③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함.

8.19-8.25

8 월

4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北, ‘1990년대 경제사령탑’ 한성룡 前당비서 재조명(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2면 전체를 할애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일꾼을 키우신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1990년대~2000년대 초 ‘경제의 시장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성룡 전 노동당 경제담당 비서를 재조명하는 기사를 실음.
  - 신문은 한성룡에 대해 당과 수령의 의도를 강한 원칙성과 순결성, 높은 실력과 추진력으로 받들었다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실천 속에는 한성룡 동지가 남긴 뚜렷한 발자취가 있다”고 그의 업적을 부각함.
  
- 北 김정은 “군사과학기술 수준 올려야”(8/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전시품들을 둘러보고 “우리의 군사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이로 끊임없이 올려세워야 한다”며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1면 사설에서 “평양시를 주체 조선의 수도, 선군 문화의 중심지답게 웅장하고 풍치 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시·군에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건설해 우리 인민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힘.
  - 신문은 “평양은 혁명의 수도이며 주체 조선의 심장”이라며 “우리는 평양시를 수도의 지위에 맞게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최룡해 “평화는 귀중…전쟁 바라지 않아”(8/21, 연합뉴스)

- 북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24일 북한이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고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최종) 목표로 내세우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고 말함.
- 이어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 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함.

● 北 김정은, 새 전투함 기동훈련 참관(8/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전투함을 살펴보고 해상 기동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 전투함을 돌아보며 배수량, 속도, 각종 무기의 성능 등을 알아보고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성과들이 도입된 전투함선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으나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한 장소와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지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함선은 항해와 사격조종을 비롯한 모든 전투행동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종 대상에 대한 타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21세기 전투함선”이라고 치하함.

● 北 ‘선군절’ 맞아 김정일 ‘업적’ 띄우며 경축(종합)(8/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위대한 선군의 기치 높이 백전백승을 떨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 우리 혁명 앞에 최악의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신 것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실록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를 세웠으며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군정치를 ‘완성된 정치 방식’으로 확립했다고 덧붙임.

### ■ 김정은동향

- 8/20,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 시찰(8.20, 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리영길, 윤동현 동행
- 8/20, 김정은 黨 제1비서, 8.20 '문선명'(前 통일교 총재) 사망 1주기 즈음 '한학자'(통일교 총재 문선명 배우자)에게 '추모의 글' 전달(8.20, 중통·중방)
  - '추모의 글' 김양건(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 박상권(통일교 사무총장)에게 전달
- 8/25,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선 기동훈련 지도(8.25, 중통·중 평방)
  - 윤동현, 박정천, 김명식, 리병철, 황병서, 홍영철, 김병호 등 동행
  - 김정은, '전승혁명사적지 개건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8.25, 중방)
  - 김정은,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근로자들'에게도 감사 전달(8.24, 중방)
- 8/25, 김정은 黨 제1비서, 8.25 "선군절" 즈음 당보(노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에 담화("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발표(8.25, 중통)

### ■ 기타 (대내 정치)

- 「청년절」 경축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8.23 리영수(黨 중앙총 부장)·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전용남(「청맹」 중앙총 위원장/개막사)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23, 중통·평방)
  - 「청년절」 경축 1급 남자축구 조별연맹전(김일성경기장), 8.23 4.25팀 對 묘향산팀 경기 등 마감 단계 경기 진행(8.23, 중통·중방)
  - 「청년절」 경축 평양시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8.12~28 진행(8.23, 중통)
- 김정일 '선군영도 시작(8.25)' 5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8.24 최룡해(보고)·문경덕(사회)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8.24, 중·평방·중통)
  -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며,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자주·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음.
  -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 배격하고 남북간 대결상태를 해소,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함.
  -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임.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김격식,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국렬,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명삼, 조연준, 김영대(8.25, 중방)
  - 인민무력부의 경축 무도회, 8.24 진행(8.24,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 생산정형 현지 요해 및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 전시회장'과 농업과학원 시험장 방문(8.24, 중통·중방)

## 나. 경제

- **北, 외국인투자 자원개발 편중 지적…다각화 모색(8/22, 연합뉴스; 경제연구)**
  -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7월 30일 발행)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은 우선 투자의 다양화가 원만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대상들은 주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취공업 부문 기업소들과의 합영, 합작 단위들”이라며 “투자 방식뿐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 다양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서 부정적 후과(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함.

### 기타 (대내 경제)

- 자강도 초산청년2호발전소건설, 설비조립과 시운전, 자동조종체계확립 등 마감단계 공사 추진(8.19,중통)
-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8.20 최태복(黨중앙위 비서)·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등 참가자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8.20,중방)

## 다. 사회·문화

- **北, 생물공학단지 ‘평양생물기술중심’ 조성(8/2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평양시에 들어선 비타민C 공장이 ‘평양생물기술중심’에 있다고 20일 보도하면서 생물공학 연구·생산단지를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평양생물기술중심에는 비타민C 공장 외에도 생물기술연구소, 복합미생물비료공장, 시험분공장 등이 있고 생물농약 ‘아베르펙틴’, 향산화 건강음료 ‘EM-X’, 미생물발효 촉진제, 물 정화제, 소화가루약 등을 생산했으며 이들 제품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유엔 “北수해지역에 수인성 질병 확산”(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수해지역에서 설사환자가 급증하는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실은 ‘북한 홍수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수해지역에 기초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며 “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이 전염·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함.
- 北 잡지, 노동성과 ‘과학적 측정’ 중요성 강조…왜(8/25, 연합뉴스; 경제연구)
  -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7월 30일 발행)는 ‘과학적인 경제계산의 중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누구에게나 일한 만큼, 번 것 만큼 차례지도록(돌아가도록) 할 데 대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실현하자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경제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2 대외 관계

- 中 구금 김광호씨 처제·처남 등 2명 북송될 듯(8/19, 연합뉴스)
  -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재탈북자 김광호씨 부부와 딸은 한국 국민으로 인정이 돼 한국행이 성사됐으나 함께 탈북한 김씨의 처제와 처남은 이미 북송됐거나 조만간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통신은 서울의 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19일 “중국 당국이 한국 국적인 김씨 부부와 딸 등 3명과 한국 국적이 없는 김씨의 처제·처남을 20여일전 분리해 수감했다”면서 “이어 김씨의 처제·처남은 10여일전 투먼의 변방대로 보내졌다”고 밝혀 “북송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힘.
- 北 “분단 유관국들, 한반도 평화 기여해야”(8/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평화적 환경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분열에 책임있는 유관국들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다면 기술적 전쟁상태를 의미하는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北 나선상품전시회 개막…미국 등 120개 회사 참가(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제3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120여 개 회사가 기계설비, 강철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의약품 등을 출품한 가운데 19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뉴질랜드인 오토바이여행단 보도(8/19, 조선중앙통신)**
  - 뉴질랜드인으로 구성된 ‘백두-한라 오토바이여행단’의 출정행사가 19일 백두산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여행단장인 개러스 모건 박사가 “조선이 통일돼 조선인민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행단원들의 소원”이라며 “앞으로 조선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스위스, 북한에 스키 리프트 수출 금지(8/19, 존탁스차이퉁; 20미닛)**
  -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북한에 스키 리프트 장비를 수출하겠다는 한 민간 회사의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호화물품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스위스 신문 존탁스차이퉁과 ‘20 미닛’ 등 현지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위스의 바르트홀레트 마쉬넨바우(BMF)라는 회사는 원산 인근에 110km의 슬로프와 케이블 카, 호텔, 헬리콥터 착륙장 등을 갖춘 호화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북한 정부와 755만 프랑(약 90억 8천785만원) 규모의 리프트와 곤돌라를 결합한 케이블카 시스템 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스위스 정부는 리프트 장비를 호화물품으로 분류한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판단과 보고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방북(8/20, 조선중앙통신)**
  -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 일행이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세계식량계획, 대북 식량지원 긴급자금 확보(8/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북 식량지원 자금 부족을 호소했던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긴급 자금 확보로 대북사업 중단 위기를 넘겼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20일 RFA와 인터뷰에서 WFP가 북한 주민 영양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약 55억9천만원)를 긴급 배정해 연말까지 지원할 곡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北, 러 연해주서 내년부터 옥수수 재배(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내년부터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옥수수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연해주 정부가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연해주 정부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 경제대표단 일행이 지난 19일 연해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인 김춘성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세르게이 시도로프 부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지역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농업 합작 사업으로 옥수수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탈리아도 北에 스키장 설비 수출 안하기로(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탈리아의 리프트 제조업체 ‘라이트너’의 마우리치오 토데스코 공보 담당이 이탈리아 외무부와 협의해 당분간 북한 스키장 건설에 어떤 부품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中, 北고려항공 구형여객기 6대 영공 운항 금지(8/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고려항공 페이스북을 인용해 고려항공 여객기 6대가 올해 중국 영공 운항이 금지되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운항이 금지된 여객기는 러시아제 투폴레프 여객기 Tu-154 2대, Tu-134 2대, 러시아제 일류신 Il-62 2대 등으로 제작 연도가 1976~1986년으로, 고려항공 여객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종에 속함.
- 北 “한일합병조약은 날조품”… 日에 과거청산 촉구(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날조품 한일합병조약’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은 일제가 우리 민족과 국기를 말살하기 위해 무력에 의한 위협과 공갈로 날조한 것이라고 비판
  - 신문은 “일제는 국제조약 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합병조약을 날조했다”며 “일본이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그 무효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과거청산을 성근하게(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수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법률적 문제”라고 지적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원장 “北, 현지 방문조사 허용해야”(8/22,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북한이 강제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의 존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목된 만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가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믿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독립적 기구가 해당 장소를 볼 수 있도록 북한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北 김영남,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면담(8/2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유엔 회원국,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 이행 부진(8/23,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소리(VOA)는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2일 현재 그동안 한 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6개국 가운데 보고서에 대북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한 국가는 24개국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16개국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주대륙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몰디브뿐이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단 한 국가도 없음.

● **北, 유엔인권조사위 활동 비난…“남북대화에 찬물”(8/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서울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해 “남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불러올 후과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COI의 활동을 거론하며 “정세 흐름에 맞지 않게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걸고들며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매달린다면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주장함.

● **北, 외국인 관광에 잇단 ‘빗장풀기’…“1년 내내 개방”(8/24, 연합뉴스)**

- 24일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여행사의 북한 파트너는 최근 “북한이 처음으로 1년 내내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을 통보해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고려여행사는 페이스북에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방북하는 외국인 단체관광 상품을 소개함.

● **WFP·FAO, 9~10월 北서 작황 현장조사(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단이 다음 달 말 북한을 방문해 올해 작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함.

- WFP의 북한 담당자는 WFP와 FAO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보름 동안 북한에 머물며 ‘작황과 식량상황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 **北 스키협회, 유럽국 스키장비 대북반출 불허 비난(8/24, 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스위스와 이탈리아 정부가 스키 리프트의 대북 반출을 불허한 것을 ‘유엔현장에 대한 유린’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스키협회 대변인은 발표한 담화에서 “일부 나라들이 유엔제재라는 데 걸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스키장 삭도(리프트)설비 수출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면 그것은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밝힘.

● 北, 외국인 대상 관광 투자설명회…외자 유치 주력(8/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4일 평양에서 관광산업에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국제여행사는 북한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중국·영국·독일 여행사 대표가 초청된 가운데 양각도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특혜조치를 설명함.

기타 (대외 일반)

- 제3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8.19 조정호(나선시인민위원장) 등 참가자 나선시에서 개막(8.19, 중통·중방)
- 日 우익보수정객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정례행사로 전통화함으로써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둔갑시켜 일본인들 속에 군국주의사상을 강하게 불어넣으려는 목적’이라며 ‘군국주의 부활책동’이라고 비난(8.19, 중통·노동신문)
- 北, ‘조선전쟁 직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따라 평화를 수호하며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8.20, 중통·노동신문)
- 일본의 과거 ‘위안소’ 운영 부정에 대해 ‘성노예범죄에 일본군이 관여한 자료(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가 발굴 되었다’며 ‘일본은 성노예제도를 정책화하고 위안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전대미문의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비난(8.20, 중통·민주조선)
- 미국 사회의 “비인간적 만행(기형아 친딸 매매광고, 10년간 여성 감금 유린 등)”을 거론하며 ‘악육 강식,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부르조아 사상이 지배하는 인권불모지’라고 조소(8.21, 평방)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우리민족끼리·남북관계 개선’ 재차 강조(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글에서 “북과 남이 불신하고 대결하던 과거를 털어버릴 때가 됐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비결은 우리민족끼리에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합의 관계로 전환하고 대화와 협력을 다그쳐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은 우리민족끼리 마주앉아 북남관계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해결한 좋은 경험”이라고 평가함.
  - 또한 “신뢰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말하면서도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에 계속 매달린다면 신뢰는 고사하고 대결의 악몽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을지연습 기간에 ‘평화·남북협력’ 강조(8/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이념’ 제목의 기사에서 “평화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것”이라며 “조선전쟁 직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힘.
  
- 北, 朴대통령 ‘지하병커’ 회의 비난(8/20,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훈련 첫날 청와대 ‘지하병커’에서 회의를 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한 것에 대해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성의와 인내성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남조선 당국이 계속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악화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남북관계, 다방면 대화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대화와 협력은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정상화는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밝혀진대로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북과 남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협력의 기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조국통일이라는 민족 공동의 큰 이익을 보지 못하고 협애하게 자기의 주장에만 매달린다면 불신과 대결의 골만 깊어질 뿐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개성공단 합의, 한반도 주변정세에 긍정적 영향”(8/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을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갈 확고한 의지 밑에 얼마전 몇가지 제안들을 내놓았다”며 “우리의 제안들이 실현되면 북남관계는 크게 진전하게 될 것이며 통일의 길이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쌍방이 관계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조국통일의 대의에 복종시키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힘.

## 나. 경제사화문화

-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운영 초안 전달(8/19, 연합뉴스)
  - 북한이 1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초안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초안이 왔기 때문에 기존 우리 측 안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측 안을 북한에 보내는 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힘.

- **北 민화협, 방북 국내 민간단체에 수해지원 요청(8/21, 연합뉴스)**
  -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의 분배 상황 점검(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방북했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은 21일 북측 협력상대인 민화협 관계자가 현지에서 북한의 수해 상황을 설명하며 수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엄 사무처장은 “민화협 관계자가 신의주와 사리원, 안주, 태천 지역에 수해가 상당하다며 수해지원이 가능한지 물어왔다”라며 “수해지원 시 식량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설명함.
  
- **남북, ‘추석 이산상봉’ 실무접촉 내일 판문점서 개최(8/22, 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측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추석(9·19)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접촉이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23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으며 우리측이 다음달 25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회담 시기와 관련,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면서 8월 말~9월 초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함.
  
- **개성공단 기업 시설점검 완료...9월초 생산재개 요청(종합)(8/23, 연합뉴스)**
  - 남북 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틀 간 입주기업 방북 일정이 23일 마무리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오후 5시께 당국자와 유관기관, 입주기업, 영업소에서 나온 306명(외국인 3명 포함)이 차량 143대에 나눠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했다고 밝힘.
  - 섬유·신발·기타 업체들이 포함됐으며 재가동에 앞서 개성공단 현지 공장 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 일정 등을 확인함.
  
-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전문(8/23, 연합뉴스)**
  - 남북한은 23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어 내달 25일부터 30일

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다음은 4개항으로 구성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전문
- 『남과 북은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8월 29일에 남과 북이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대로, 회보서는 9월 13일, 최종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한다.
  - ③ 상봉 형식과 방법 등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 2. 남과 북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면서 추석 계기 상봉이 끝난 직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3년 8월 23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이덕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단장 박용일』

●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내달 25~30일 금강산서 실시(종합)(8/23, 연합뉴스)**

- 남북은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23일 합의함.
- 양측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함.
- 내달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했으며, 상봉의 방법과 형식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으며 남북은 추석 상봉에 이어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추석 상봉 직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가로 열기로 함.

● 北, ‘추석 이산상봉 합의’ 논평 없이 보도(8/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남적십자실무회담이 23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며 “회담에서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힘.
- 그러면서 ▲9월 25~3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대면상봉 ▲10월 22~23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11월 이산가족 추가 상봉에 공감 ▲상봉 정례회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등 4개 항을 담은 합의서 전문을 공개함.

■ 기타 (대남)

- ‘남북, 해외 온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주체임을 명심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조성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며 ‘분단 관련국, 평화와 안정에 기여’ 촉구(8.19,중통)
-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에 대한 서울광장에서의 촛불집회 관련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민심의 발현’이라며 ‘당국은 집회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8.19,평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8.20)] 박 대통령의 을지연습 첫날(8.19) 청와대 ‘지하버커’ 회의에서 한 발언(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등)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남북사이의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8.20,중통·중방)
- 北,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외세 배격” 및 “우리민족끼리” 정신 강조(8.20,중통·중방·노동신문)
-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남북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지속 ‘대화·협력’ 강조(8.22,중통·노동신문)

8.26-8.31

8 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김정은, 黨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중요한 결론”(8/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인민군대의 현 실태로부터 출발해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으며 조직 문제도 논의됐다고 보도함.
- **北, 군수공장 밀집 자강도 당 책임비서에 김춘섭 임명(8/2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7일 1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 대한 당·정·군 고위간부들의 반응을 실으면서 김춘섭을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소개했다며 자강도의 당 책임비서가 류영섭에서 최근 김춘섭으로 교체되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선군절 담화’ 관철 맹세 잇달아(8/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1면 톱기사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안정수 경공업상, 김춘섭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선군절 담화’에 신속히 반응하며 내놓은 ‘과업 관철’을 맹세를 인용 보도함.
- **北, ‘선군절’을 국가 명절로 제정(8/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령’을 통해 “선군절인 8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한다”며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휴식일로 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청년절’ 기념 축구경기 관람(8/29, 조선중앙통신)

- 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년절’인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인민군 ‘4·25팀’과 노동적위군 ‘선봉팀’ 간의 ‘햇불컵’ 1급 남자축구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김정은동향

- 8/26, 김정은 黨 제1비서, ‘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8.26,중통·중방)
  - 黨 중앙군사위 위원들, 軍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黨의 선군혁명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였다’고 보도
- 8/2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무력부 ‘선군절’ 경축연회 참가(8.26,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인 차수, 연설),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軍 지위성원들, 군단 지휘성원들 참가
- 8/28, 김정은 黨 제1비서, 햇불상 1급남자축구 결승경기 관람(8.29,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리영길,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로두철, 조연준과 국가체육지도위원들, 체육종목별 후원단체 책임일꾼들 등 함께 관람
- 8/28, 김정은 黨 제1비서, 故 ‘김병훈’(문예총중앙위 전 위원장) 영전에 화환 전달(8.29,중통)
- 8/28,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8.15) 60돌 즈음 축전을 보내어 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8.28,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선군절’ 53돌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위대한 선군영장 만만세’, 8.26 김영남 참가下 인민극장에서 진행(8.26,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8.26), ‘선군절(8.25)을 국가적 명절, 해마다 휴식일, 軍 부대와 구분대들에서 이날에 최고사령관기를 띄울 것이며 국가기관·기업소·단체들과 가정들은 공화국 기를 띄울 것’을 결정(8.28,중통)
- 黨·국가 책임일꾼들, 각지 청년학생들과 함께 청년절 경축(8.28,중통)
  -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김평해, 로두철 등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메타물생산공정 준공식, 8.29 박봉주(내각총리)·곽범기(黨중앙총 비서)·태종수(함경남도 黨위원회 책임비서)·이무영(내각부총리) 참가下 진행(8.29,중통·중방)
  - 박의춘(외무상), 8.31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8.31,중통·중방)
  -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 8.31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8.31,중통·중방)

## 나. 군사

- **北 리영길 대장 승진…김정은 시대 약진 주목(8/2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시대의 핵심인물로 주목받는 리영길 인민군 상장(우리의 중장)이 최근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인용·보도함.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전날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햇불컵’ 1급 남자축구 결승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며 곁들인 사진에 리영길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음.
  
-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도 대장 승진(8/30, 연합뉴스)**
  -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상장(우리의 중장)에서 최근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8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햇불컵’ 1급 남자축구 결승전을 관람하는 모습을 담은 조선중앙통신 사진에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은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음.

## 다. 사회·문화

- **北 ‘청년절’ 맞아 ‘경제강국 건설’ 재차 강조(8/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청년들은 선군 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강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밝힘.
  
- **北 “관광업은 중요산업”…국제항공노선 확충 추진(8/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한이 “관광업을 중요산업의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비롯한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소개하면서 평양-상해(상하이), 평양-연길(엔지) 등 북한과 중국 주요 도시들을 잇는 국제항로들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두산지구, 원산지구, 칠보산지구와 외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항로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 관광지를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지구를 서로 잇는 국내 정기항로도 개설하며 전국 각지에 만들어지는 경제개발구에서 지방색에 맞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힘.

● **북한 김병훈 前 문예총위원장 사망(8/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문예총 중앙위원회 전 위원장 김병훈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28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北 여자축구 대표팀, 독일 원정경기 계획(8/30, 조선신보)**

- 김광민(51) 북한 여자축구대표팀 책임감독은 “팀은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독일 1부류 팀들과의 원정경기를 예정하고 있다”라며 “원정경기를 통해 팀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함.

● **北 “마식령 스키장 보란 듯이 세워질 것”(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마식령 스키장 설비 수출을 금지한 것을 비난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등 적대세력이 국제무대에서 비열한 짓을 일삼아도 마식령 스키장은 보란 듯이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함.
- 통신은 논평에서 “최근 서유럽 일부 나라들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공화국에 대한 스키장 삭도(리프트)설비 수출을 거부해 나선다”라며 “이것이 ‘만민평등’이고 ‘인권옹호’인가”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힘.

● **北 설경, 세계유도 여자 78kg급 금메달(8/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여자 유도의 설경(23)이 30일(현지시간) 2013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설경은 여자 78kg급 결승전에서 네덜란드 선수를 꺾고 1위를 차지함.

● **北 최초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설(8/31, 연합뉴스; 조선신보)**

-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문턱과 계단이 없는 장애인 전용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시 동대원구역에서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이 건설 중이라고 보도함.

##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반기문 “적절기회 방북검토…DMZ평화공원 적극돕겠다”(8/26,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적절한 기회를 봐서 북한 당국,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방북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반 총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서서히 진전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선은 관계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에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임.
- 마우러 국제적십자총재 “北, 이산가족 상봉 의지있어”(8/26, 연합뉴스)
  - 지난 20~23일 북한을 방문했던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26일 “북한 당국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더라”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북한, 올봄 시리아에 무기수출하려다 터키서 압수돼(8/27, 산케이(産經)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27일 미군 소식통 등을 인용, 북한이 가스마스크와 대량의 총기, 탄약을 리비아 선적 화물선으로 시리아에 수출했다는 정보를 미군이 입수, 미군의 통보를 받은 터키 치안당국이 지난 4월 4~5일 이스탄불 인근 항구에서 화물선을 수색해 이들 무기를 압수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압수된 화물에 라이플과 단총 1천 400정, 저격 라이플용으로 보이는 탄환 등 3만 발, 중기관총용 탄환클립 2천 600개 외에 화학방호용으로 보이는 가스마스크 등이 있었다고 밝힘.

● **다루스만 “유엔 조사위는 北인권 강경접근 출발점”(8/27,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강경한 접근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관련 유엔 결의들에 대해 만장일치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의 인권보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는 COI의 조사와 제안을 토대로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에서 충실히 협력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임.

● **北 “북한인권 언급은 대화 분위기 깨려는 것”(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등을 비난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소동을 벌이는 것은 대화 분위기가 비위에 거슬리거나 그것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서로 다른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 등 적대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남관계는 물론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격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수용소 6곳중 22호·18호 폐쇄·해체(8/27, 연합뉴스)**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6곳 중 2곳이 폐쇄 또는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14호) 및 북창(18호), 함경남도 요덕(15호), 함경북도 화성(16호) 및 회령(22호)과 청진(25호) 등 외부에 알려진 6곳의 수용소 중 이른바 ‘22호 관리소’를 폐쇄하고 ‘18호 관리소’는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드러남.

- **中회사, 北나선시와 자동차생산지 건설 의향합의서(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나선삼대성합영회사 이사장 성학식의 말을 빌려 제3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8월 19~23일) 기간에 중국제1자동차집단공사가 나선시인민위원회와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에 관한 의향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함.
  
-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몽골 방문(8/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보안부(경찰청에 해당) 대표단이 27일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北, 인권위 방문조사 허용해야”(8/27, 연합뉴스)**
  - 내한중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믿을만한 국제기구가 북한에 가서 인권 관련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북한 당국은 COI가 북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커비 위원장은 COI 청문회와 관련, “북한 당국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한다”는 등 일부 증거가 부족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범수용소·교도소에서의 인권침해, 공개처형, 연좌제, 납북자·국군포로,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믿을만한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밝힘.
  
- **김정은 ‘동북아서 위험한 일 없을 것’(8/27, 마이니치 신문)**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앞으로 동북아에서 위험한 일은 일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관련 도발을 자제할 뜻을 시사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7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소수 인사만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식 회동에서 리 부주석은 ‘한반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김 제1위원장은 ‘중국의 입장은 이치에 맞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청천강호 억류’ 파나마 “북한에 입국비자 발급”(8/28, 연합뉴스)**
  - 페르난도 누네즈 파나마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자들이 파나마 정부가 발급한 입국 비자를 28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한 당국자들이 파나마에 구금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을 면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청천강호 전투기부품, 북한에서 쓰려던 것(8/28, 연합뉴스)**
  -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실린 전투기 부품은 쿠바의 주장처럼 정비 후 반송용이 아니고 북한에서 사용하려던 물품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번 청천강호의 무기류 수송은 명백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오스트리아 스키장비 업체도 北과 거래안해(8/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스키장비 업체 ‘피셔 스포츠’가 “북한으로부터 스키장비 주문을 받지도, 물건을 판매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프란츠 피팅거 대표는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사업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국제인권 대표의 이메일을 받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킹 美특사 30일 전격 방북…케네스 배 석방될 듯(8/2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위해 오는 30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국무부는 마리 하프 부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킹 특사가 30일 북한으로 건너가 31일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킹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인도적 차원에서 케네스 배를 용서하고 특별사면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함.

- 파나마 “北 선박서 발견된 무기, 유엔 제재 위반”(8/29, 연합뉴스)
  - 파나마 당국은 28일(현지시간)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신고하지 않은 채 쿠바 무기를 운반한 것이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北 인민보안부장, 몽골 대통령 면담(8/29, 몬짜메통신; 조선중앙통신)
  - 몽골을 방문 중인 북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28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면담했다고 몽골 몬짜메통신이 29일 보도함.
  -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양국 간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북한 인민보안부와 몽골 법무부의 협력관계가 발전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경제와 무역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베 “北 납치문제 이번 정권서 완전히 해결”(8/30, 교도통신)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실태 조사차 일본을 찾은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과 30일 관저에서 만나 “납치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납치피해자 전원 귀국, 납치범 송환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생각을 설명하고 커비 위원장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함.
  
- 北 방문 러시아 연해주 주민 급증(8/31, 자유아시아방송(RFA); 프리마미디아통신)
  -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을 찾는 연해주 주민도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RFA는 러시아 프리마미디아통신을 인용해 올해 상반기 북한을 방문한 연해주 주민은 1천 48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7명보다 16배나 늘었다고 전함.

- **北단체 “日, 간토대학살 등 과거사 사죄·배상해야”(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간토(關東) 대학살 90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일본 정부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유가족협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간토 대학살 이후 90년이 지났지만 “일본 당국은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北외무성 “킹 특사 초청 철회는美폭격기 출격 때문”(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한 것은 미국이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켰기 때문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최근 한미군사연습 기간 “전례없이 연속적으로 B-52H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 상공에 들이밀어 핵폭격 훈련을 벌이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미국은 모처럼 마련됐던 인도주의 대화 분위기를 한순간에 망쳐놓았다”고 비난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訪韓 활동(8.18-27, 탈북자 증언 청취·공청회 등) 및 국무총리의 ‘북인권법’ 제정 추진 발언에 ‘대화분위기가 비위에 거슬리거나 그를 깨기 위해서’라고 왜곡 再비난(8.27, 중통)
- 일본 총무상 등 정객들의 지난 8.15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는 “조선과 아시아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규탄 및 ‘일본의 군국화, 재침속심’ 경중(8.27, 중통·노동신문)

### 나. 6자회담(북핵)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방북(8/2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6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우다웨이 대표의 이번 평양 방문은 리위안차오 부주석 방북의 후속조치적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에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함.

● **北 김계관, 中 우다웨이 면담(8/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했다고 보도함.

●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의 18개 참가국 ‘北비핵화’ 촉구(8/29, 연합뉴스)**

-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 18개국 국방장관들은 29일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고 국방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전함.

● **中 우다웨이,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8/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26일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30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우 대표 일행은 28일에는 전쟁기념관을 참관하고 5·1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했으며 29일에는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평양시내를 유람함.

● **日, 대북 금융제재 추가...9개 기관, 개인 2명(8/30, 산케이(産經)신문)**

-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를 열고 대북 금융 제재 대상으로 북한 평양의 대동신용은행, 조선대성은행 등 9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함.
- 신문에 따르면 9개 기관외에 북한 원자력개발부문 간부 등 개인 2명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됨.

###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 北 “상호 양보로 남북 대화·협력 추진해야”(8/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화해와 평화, 공동 번영을 추동하는 정당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과 남이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발휘된 상호 이해, 양보 정신으로 함께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대화와 협력이 적극 추진돼 온 겨레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달 18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담긴 제안들은 “그 어떤 사심도 없으며 북남 관계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하루빨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진정이 깔려 있다”고 강조함.

##### ● 北국방위 “韓美, 대화·평화 환경에 유익한 결단해야”(8/29,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을지프리트립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전쟁 소동’으로 비난하고 “지금이야말로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 허용될 때”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각도 최대한의 인내성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는 냉전시대 유물인 적대관념과 동족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강조함.

##### ● 北, ‘내란음모 수사 사건’ 논평없이 보도(8/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남한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정원과 검찰이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또 한차례의 대대적인 폭압에 나섰다”면서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기동부연합 성원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들씌워 그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수색소동에 열을 올렸다”고 전함.

- 통신은 “괴뢰패당은 그들이 지난 5월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체제전복을 모의한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지하혁명조직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덧붙임.

● 北노동신문 “남북 대화는 ‘홍정’이 아니다”(8/31, 노동신문)

- 북한은 31일 남북간 대화에서 ‘홍정’을 지양해야 하며 한반도 관련국들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하지 말아야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신문은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는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의 마당이지 홍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이기적인 타산과 같은 판마음을 품고 동족과의 통일대화에 나설 때는 지나갔으며 진정으로 분열로 고통 겪는 겨레의 아픔을 풀어주려는 선의와 인간애만이 회담장에 차넘쳐야 한다”고 말함.

● 조선신보 “北, 한반도 평화 ‘통 큰 해법’ 구상”(8/31, 조선신보)

-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통 큰 해법’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31일 보도함.
- 신보는 ‘조선이 구상하는 과감한 평화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9일 발표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가 “건설적이며 과감한 평화적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그동안 평화 대화의 시작에 이러저러한 전제조건을 달면서 대결 노선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더이상 시비할 수 없는 대범한 행동 계획, 통이 큰 문제타결안이 구상됐을 수 있다”고 밝힘.

##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금강산 회담 연기제안에 ‘유감’ 표명…재고 요구(8/28, 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당초 제안일보다 1주일 늦은 오는 ‘10월 2일’ 개최하자는 우리측 수정 제안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고를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10월 2일 수정제안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남북간의 조치가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 “북측이 호응해 올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함.
  
- **北 “개성공단 공동위 1차 회의 내달 2일 개최”(8/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논평 없이 간략히 전하며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는 9월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신은 남북이 공동위 산하에 “상설사무처와 필요한 분과들을 내오고 개성공업지구 운영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임.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확정, 내달 2일 첫 회의(8/29,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와 관련 “쌍방이 합의를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다”면서 “문건 내용은 오늘 오전 최종 확정됐으며, 다음달 2일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확정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단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양측 당국간 해결해야 할 현안 등을 협의·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됨.
  - 남북은 공동위를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고 공동위 산하에 ▲ 출입·체류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 ▲ 통행·통신·통관 ▲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를 두기로 했으며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양측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南 250명-北 200명 이산상봉 생사확인 의뢰 명단 교환(8/29, 연합뉴스)**
    - 남북이 29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확인 의뢰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후보자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이산가족 후보자 250명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도 이날 200명의 이산가족 후보자 명단을 우리 측에 전달함.
    - 남북 양측은 다음 달 13일 이산가족 후보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하고 사흘 뒤인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을 100명씩 주고받을 예정임.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위원장에 김기웅·박철수(8/30, 연합뉴스)**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협의할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우리측 위원장은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 위원장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맡게 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은 30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다음 달 2일 열리는 공동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할 양측 위원 5명의 명단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남북 여성단체 ‘위안부 공동토론회’ 11월 개최키로(8/30, 연합뉴스)**
    - 남북 여성단체가 오는 11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오는 11월 초 을사늑약 날조 108년을 계기로 남과 북, 해외 여성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여성토론회’를 (추후) 합의되는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南北,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8.29,중통·중방)
- [北 국방총 정책국 대변인 담화(8.29)]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전쟁소동”으로 비난하고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라고 주장(8.29,중통·중방·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7·8월

북한동향 일지

<7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7/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871군부대 포사격훈련 현지지도
7/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마식령스키장 군인건설자들에게 ‘선물(건설자재·식료품·생활용품)’ 전달모임
7/1, 중통·중방·평방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미평협동농장(강원도 통천군) 현지 요해 및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방문
7/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과학자살림집건설장(평양시 교외·1,000세대)·완공단계에 이른 인민군열사 묘(평양시 연못동 입구)·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시찰
7/3,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강동정밀기계공장 현지지도
7/3, 중통·중방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인민군열사묘·과학자살림집건설장 현지요해
7/4,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 건설현장 요해(군인 건설자들 고무) 및 평양 학습장공장(현대화 정형 요해) 방문
7/5, 중통·중방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강원도 세포등판 개간전투장 현지 요해
7/6, 중방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7.5 태중수(함경남도 당책, 기념보고) 등 참가下 함흥대극장에서 진행
7/6,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순천화학연합기업소·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생산정형 현지요해
7/7,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중요대상 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7/8,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7.8 0시 ‘김일성 사망(7.8)’ 19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및 ‘김일성·김정일에게 경의 표시’
7/8,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7/1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방문
7/13, 중통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사적건물들의 영구보존실태와 관리정형 현지요해
7/14,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한 설철수(국가건설감독성 처장) 등에게 ‘감사’ 전달
7/16,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 현지지도
7/1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 중인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건설장 현지지도
7/19, 중통·중방·평방	박봉주 내각 총리, 아동병원·구강병원 건설장 및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와 문수물놀이장 현지 요해
7/21, 중통·평방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협동농장·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은률군 장련협동농장·관해협동농장의 농업실태 현지요해

보도일자	내용
7/2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과 전승혁명사적지 개건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7/24,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7/2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7.24 '전승' 60돌 경축행사 참가 차 방북하고 있는 시리아 대표단(단장 : 압둘라 알 아흐마르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접견
7/2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下 “조국해방전쟁참전 열사묘(500여명 안치)” 건립(평양) 준공식, 현지 진행
7/25, 중통·중방	박봉주 내각 총리,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 현지 요해
7/2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7.25 중국 부주석 '리원조(李源潮, '리위안차오')' 등 北 「전승절(7.27, 정전협정 체결)」 60돌 행사 참석 중국 정부 대표단 접견 및 '시진핑'(중국 주석)의 “구두친서” 접수
7/2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7.26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7/2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 60돌 기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7/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7.29 평남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찾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모택동 아들 모안영 등) 추모
7/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7.29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가 위치한 '성흥혁명사적지' 방문
7/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절」 60돌 경축행사 참가한 전쟁노병 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
7/3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변장패(女, 평안북도 삭주군)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
7/31,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 성천군內(읍협동농장 등) 영농실태 현지 요해

〈8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8/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4.25팀과 햇불팀의 남자축구경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양궁경기 관람
8/1,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인민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섯공장들’ 현지 요해
8/3,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전승절』 60돌 경축 열병식 참가 전쟁노병들·지위성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8/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8.3 故 정몽헌 (前 현대그룹 회장) 사망(’03.8.4) 10년 관련 원동연(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통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8.3, 訪北)에게 “추모 구두친서” 전달
8/4, 중방·평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전승” 60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관람
8/4,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산업미술창작사 박명순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8/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장태영’(대성지도국 부원) 등 조선혁명박물관 조성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8/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에 이른 과학자살림집(평균 85%) 건설장과 새로 개건 중인 평양체육관(’73.4 준공) 시찰
8/9,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공훈국가합창단·조선인민군협주단 일꾼 등에 ‘감사’ 전달
8/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미림승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건설장 시찰
8/10, 중통	김정은, ‘림선비’(황남 강령군 봉오리)의 100회 생일상 전달
8/10, 중통·중방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마식령스키장건설정형 현지에서 요해
8/1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1일공장(전자제품들 생산공장) 현지지도
8/13,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방문
8/14, 중방	김일성·김정일의 양강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8.14 김희택(양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자 진행
8/1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8.14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축구경기(용악산팀 對 보통강팀) 관람
8/1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404군부대 시찰(최룡해 동행) 및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현지지도
8/19, 중통·중방	김기남·로두철·김인식(내각부총리)과 당·정권기관 등, 김보현 생일 142돌 즈음 만경대 모에 헌화
8/20, 중방	김정일 노동신문사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 8.19 윤우철(노동신문 책임주필, 기념보고) 등 참가자 진행
8/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 시찰
8/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문선명’(前 통일교 총재) 사망 1주기 즈음 ‘한학자’(통일교 총재·문선명 배우자)에게 ‘추모의 글’ 전달

8/22, 중통·중방·평방	김영남, 8.22 적십자국제위 위원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
8/23, 중방	김일성 父子 강원도 현지도도 40돌 기념보고회, 박정남(강원도黨 책임비서/기념보고)·원도희(道인민委 책임비서) 등 참가下 원산에서 진행
8/24, 중통·중방·평방	김정일 '선군영도 시작(8.25)' 5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최룡해(보고)·문경덕(사회)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8/24,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청천강화학발전소 생산정형 현지 요해 및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 전시회장'과 농업과학원 시험장 방문
8/2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선 기동훈련 지도
8/2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선군절" 즈음 당보(노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에 담화("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발표
8/26, 중방	김일성 동명왕릉 현지도도 60돌 기념보고회, 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
8/27, 중통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일행과 친선 담화
8/28,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8.15) 60돌 즈음 축전을 보내어 온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
8/2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8.28 햇불상 1급남자축구 결승경기 관람
8/2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8.28 故 '김병훈(문예총중앙위 전 위원장) 영전에 화환 전달
8/29, 중통	박의춘(외무상),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세계보건기구(WHO) 대표(스테판 파울쵸스트) 신임장 접수 및 담화
8/31, 중통·중방	박의춘(외무상),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